

한국 YWCA

2022년 5·6월호
MAY · JUN Vol.578

기획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흥청망청 YWCA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100주년 기념 화보집

이슈포커스

YWCA 백주년, 마주해야 할 질문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시대 여성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과 함께

6.18 전국 탈핵행동



“2022년 한국 YWCA 100주년 이렇게 펼쳐집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 수립	• 고백과 성찰, Y(Young), W(Women), C(Christian), A(Association) 주제별 핵심가치와 방향성 키워드 논의 •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개최	1~3월	•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YWCA 비전 수립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 기념예배 • 기념식 • 기념특강	4월 20일(수)	• 창립 100주년 의미와 비전 선포 • 한국YWCA 100주년 대사회적 알림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 한국YWCA 100주년, 새로운 100년에 대한 감사 • 한국YWCA 100년을 만들어온 YWCA 회원 시상	9월 29일(목) (예정)	• 한국 100주년 기념해를 감사로 마무리 • 한국YWCA 리더십, 사람들과 함께 해온 역사 알림
한국YWCA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 한국YWCA 100년 화보집 발간	6월	• 한국Y 100주년 역사 공유
한국YWCA 10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포럼	• YWCA 국제여성평화포럼 • 한국사회와 YWCA 평화운동의 의미 고찰	7월 6일(수)	• 한국Y 평화운동 의미와 성과 대사회적 공유
한국YWCA 100주년 여성평화순례	• 여성평화순례(임진각 평화누리공원)	7/7(목)	• 여성평화국내외 교류와 연대 강화 • 평화통일 의식 확산
100주년 기념 사진전	• 시민과 함께했던 한국 YWCA 100주년의 역사 알림 • 전시명 :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7/13(수) ~7/26(화)	• 한국Y 100년 역사 공유와 확산
한국YWCA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 한국YWCA 초기 역사 조망 • 한국YWCA 역사적 성찰과 고백 • 한국사회와 YWCA의 역할	7월 22일(금)	• 한국Y 초기 친일 역사 정리와 해석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청년포럼	• 한국YWCA 청년운동의 의미 • 새로운 100년, 청년운동 방향 모색	9월 말(예정)	• 한국Y 청년운동 의미와 비전 공유
흥청망청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프로젝트 공모(스타트업 챌린지, 공간기반 프로젝트, 청년예술가, 회원Y 참여프로젝트) 선정 지원과 모니터링	연중	• 청년 프로젝트 지원(1억원 모금) • Y청년 운동성 증진 • 외부 청년 Y참여 경로 마련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역사전시관, 채플실 운영	• 온·오프라인 자료관 운영 • 특별전시관 운영 • 채플실 운영	연중	• 한국Y 100주년 활동과 운동 의미 홍보 • 한국Y 기록전시 공유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 청년 글로벌리더와의 만남(사람책방) • 아시아 글로벌네트워크 • 제66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파견 • 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 파견 • 청년참여단 활동	연중	• 아시아청년 소통체계 구축 • 청년글로벌 리더 지원과 양성 • 대학·청년Y 활동 홍보

2022. 5·6 한국YWCA



표지이야기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6.18 전국탈핵행동에 모인 전국 탈핵운동가들 속 YWCA 회원들.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2022년 7·8월 주요일정

- 7월 6일~7일 100주년 기념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 7월 13일 100주년 화보집 출판기념과 사진전 오픈
- 7월 13일~26일 100주년 기념 사진전 (서울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 7월 14일~15일 2022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 7월 22일 100주년 역사포럼
- 8월 6일 Y-틴 전국회원대회
- 8월 11일 양성평등임금의 날 워크숍
- 8월 23일 전국 소비자운동가 대회
- 8월 23일~25일 제 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제58권 제3호 통권 578호

2022년 6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김은주 최수신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재구조화를 넘어 거듭남으로 | **조은영**
- 05 **말씀 묵상** 모퉁잇돌, 그리스도의 화해사역 | **김신애**
- 기획①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06 흥청망청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07 100주년 기념 화보집 | **윤수정**
- 기획② 2022 제 3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 12 기후위기 해결의 국제연대와 남북협력 | **명수정**
- 15 한반도 기후회복력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할 위기의 시대 | **유에스터·안소진**
- 17 **이슈포커스** YWCA 백주년, 마주해야 할 질문 | **강남순**
- 20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시대 여성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 **정은아**
- 22 **청년토크** 대안가족을 이룬다 | **대학·청년Y**
- 24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N번방'이라는 빙산의 일각 | **오수경**
- 26 **YWCA 변화와 혁신8** YWCA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법인화 절차 | **정순문**
- 28 **이달의 현장 ①** 두 번째 사람책방 | **이예림**
- 30 **이달의 현장 ②** 전국 동시다발 지방선거 캠페인
- 32 **이달의 현장 ③** 아시아YWCA 지역회의 | **이한빛**
- 34 **이달의 현장 ④**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35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문**
- 36 **이달의 현장 ⑤** YWCA신임이사교육 | **정서연**
- 37 **지역과 함께** 6.18 전국 탈핵행동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 **여진경**
- 39 **6.18 전국탈핵행동 선언문** 40년동안 수고했다, 잘가라 고리 2호기!
- 40 **로컬프렌들리 이야기7** W - 지역 여성 커뮤니티 | **김수진**
- 43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성명서**
- 44 **5.24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문**
- 46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 47 **연합회 소식**
- 53 **연합회 모금 현황**
- 56 **회원YWCA 소식**

“재구조화를 넘어 거듭남으로”



조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사회적 약자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대에 따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던 100년의 한국YWCA는 목회 세상의 변화에 걸맞는 비영리 시민단체 법인으로 탈바꿈 중이다. 2020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재구조화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22년 현재 총 52개 회원Y 중 23개의 회원Y가 법인으로 옷을 갈아 입었고 23년까지는 거의 모든 회원Y가 독립 법인이 될 예정이다.

Bruce Turkman의 조직발전모델에서 바라보면, 한국Y는 지난 100년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조직을 확장하며 고유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 결과 “Y는~이다”라는 “우리 의식(We-ness)”과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로서 YWCA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의 최정상인 변형(Transforming) 단계를 지나온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발전의 완성을 이루고 새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새 비전과 목적을 선포하고 법인이라는 체제로 조직을 새로이 구성(Forming)하고 그 체제에 적응하고자 격동(Storming)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고자 내부 규정과 규범(Norming)을 다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회원Y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가 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였던 실행위원회는 법인이사회로 바뀌었다. 100주년의 창립정신을 재해석하고 새 100년을 나아가는 비전에 발맞추며 내, 외부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되도록 법인 이사의 수를 줄였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이사들과 청년이사들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청년 부회장을 세웠다. 그런 가 하면 실무

조직도 회원Y의 법인 재구조화 과정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체제로 진용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매일 새롭게 맞닥뜨리는 각 지역의 사안과 과제들을 회원Y와 협력하며 풀어나가고 있다.

제한된 우리의 인력과 시간에 비하면 재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안, 밖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것 같다.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정부의 규제와 주무관청별 행정에 치이는 일상 속에서 일단은 맞춰가고 있으나, 비영리 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우리의 과제로 눈 앞에 닥쳐 있다. 내부적으로는 법인이 되었다 해도 향후 Y의 정체성을 지키며 합목적적인 운동과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있는 것이다. 스스로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한3:5-6). 조직의 육에 해당하는 구조인 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조직의 영에 해당하는 가치, 문화, 일하는 방식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그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오가는 것을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듯이, 법인이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가치와 조직 문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이다. 거듭나기 위해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모퉁잇돌, 그리스도의 화해사역



김신애
목사, (사)한국YWCA연합회 전 실행위원

옛날 솔로몬 성전은 바깥쪽에 ‘이방인의 딸’이라는 아주 넓은 마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딸과 안쪽 딸 사이에는 돌담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 담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어떤 외국인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돌담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은 유대사회에서 아주 엄격하고 진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초대 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침예한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갈라진 것들의 평화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 한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모든 화해 사역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모퉁잇돌”이 됩니다.

모퉁잇돌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해서 놓이는 새로운 성전 즉, 새로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건물은 ‘각기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를 두 개의 큰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시가 놓인 상황과 방향이 다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두 벽이 각을 이루며 서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퉁잇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두 개의 벽을 받아 안아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반듯

반듯 잘생긴 벽이 아무리 크고 높고 아름다워도 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모퉁잇돌은 항상 조금 모자란 듯, 조금은 못난 듯, 많이 감내하고 많이 참고 많이 기다리고 많이 온유하고 많이 사랑해야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예쁘고 잘난 벽돌보다 더 단단하고 야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꺼울 리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21, 22)” 우리 모든 성전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교회, 즉 ‘에클레시아’ 라고 하는 한 차원 더 좋은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성전을 높이 세워진 담장 밖으로 확장하고 연결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다고 도리질 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외부와 내부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기억할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 모임이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데 아무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커지고 넓어지는 만큼 깊어지길 바랍니다. 정복이 아니라 수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누군가는 모퉁잇돌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는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곳에서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펼쳐질 한국YWCA의 백년에, 우리 모임이 능력있는 하나님의 손에 잇대어져서 날로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길,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펼쳐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주년 기념 화보집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윤수정

(사)한국YWCA연합회 아카이브 PM

한국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넘치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향해 1922년부터 지금까지 햇불을 들고 하나하나 나라 건설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발간한 화보집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는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전개한 YWCA 운동의 의미와 가치, 과정과 결과를 사회·역사적

배경에서 정리하고 생생한 시각적 자료인 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화보집은 YWCA 역사를 기록 운동사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총 10개의 연대기로 구분하고 역사 속에서 YWCA가 주체가 되어 사회변화를 일궈낸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주제를 잡아 각 연대기의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화보집 |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목차

발간사

1장. 햇불을 들다 / 1922년 ~ 1935년

1.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창립과 초기 운동
2. 학생YWCA 초기 활동

2장. 불씨를 이어가다 / 1936년 ~ 1945년

3장. 다시 세우다 / 1946년 ~ 1960년

1. 재건
2. 한국 전쟁과 구호활동
3.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본격적 활동 전개 혼인신고운동과 축첩반대운동
4. 학생YWCA 재건

4장. 손을 내밀다 / 1961년 ~ 1970년

1. 소외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2. 새로운 공간의 힘 :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활동 공간

5장. 함께 맞서다 / 1971년 ~ 1980년

1. 가족법 개정운동
2.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개선 활동
3. 새로운 여성직종개발과 직업훈련 전개
4. 인권운동으로 확장된 소비자 운동
5. 자연보호, 환경파괴 저항에 역점을 둔 환경운동

6장. 한계를 넘어서다 / 1981년 ~ 1989년

1. 다양한 여성 직종 개발과 전문화
2. 남녀평등한 법적 지위 확보 운동

3. 인간에 의한 평화와 통일운동 주도

7장. 더불어 살다 / 1990년 ~ 2004년

1. 바른 삶 실천운동
2. 실질적인 지원과 만남을 통한 평화통일운동
3. 생활 속 실천을 통한 환경운동
4. 세계YWCA 100주년 기념 YWCA 세계대회 개최

8장.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다 / 2005년 ~ 2013년

1. 생명사랑공동체운동
2. 정의운동
3. 평화운동
4. 생명운동
5. 한국YWCA 창립 9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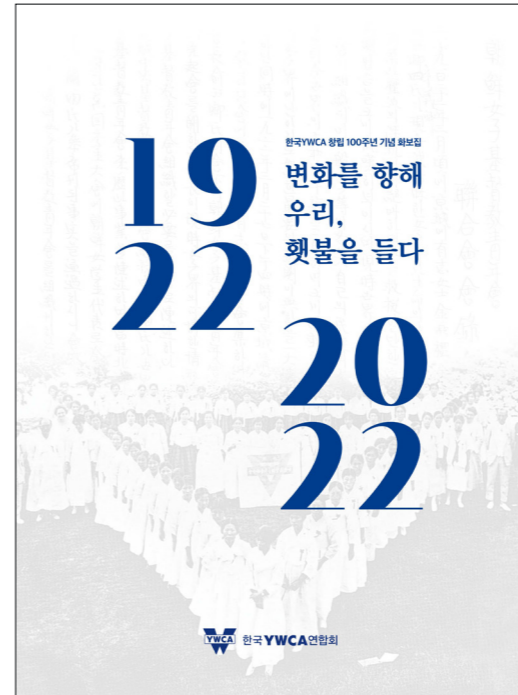
9장. 정의를 외치다 / 2014년 ~ 2018년

1. 탈핵생명운동
2. 성평등 운동
3. 글로벌 운동으로 확장된 한국YWCA 평화통일운동
4. 한국YWCA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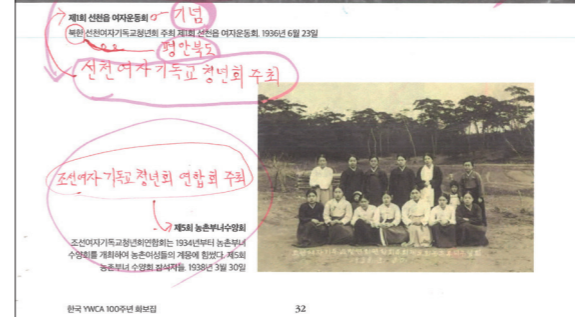
10장. 100년을 넘어 희망을 꿈꾸다 / 2019년 ~ 현재

1. 시민운동 방법의 변화
2. 청년운동의 변화
3. 한국YWCA 유산 정리
4. 지속가능한 한국YWCA 조직운동을 위한 재구조화
5. 한국YWCA 창립 10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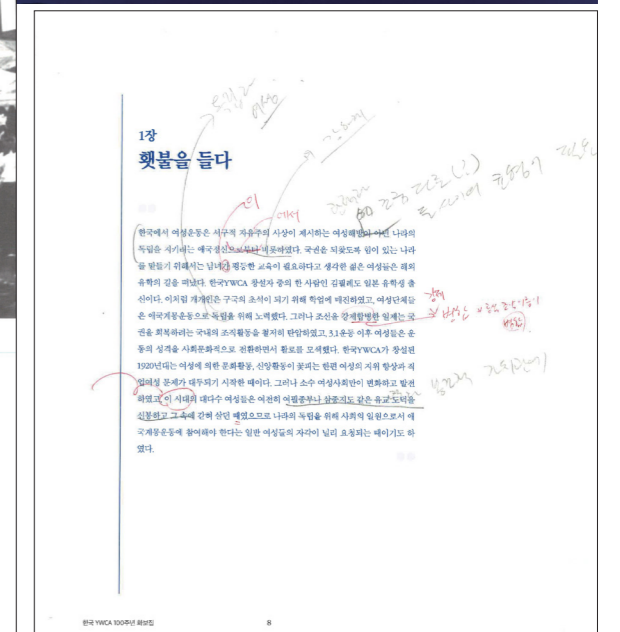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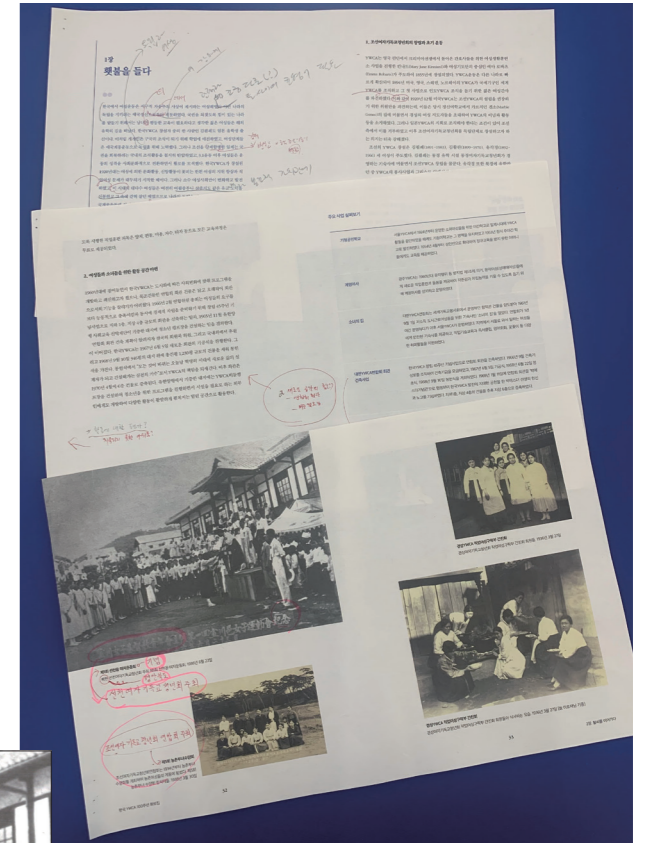
부록



<100주년 기념 화보집 표지>



한국YWCA 100주년 화보집 32



<화보집 자문위원들의 자문의 흔적>



1장
햇불을 들다

1922
1935

2020년 9월 1일 오픈한 'YWCA 아카이브'는 정말 소중한 보물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발간하는 화보집의 사진들을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인 사진들을 선별하여 이 보물창고를 조금 더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활동한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소수의 대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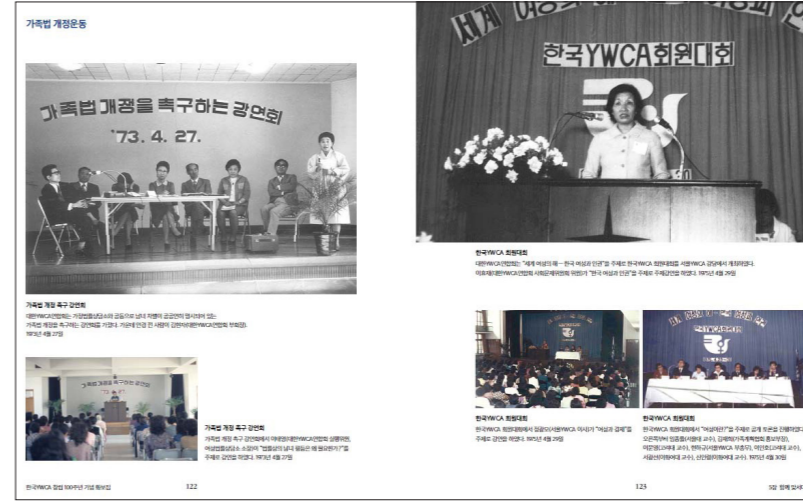
인물들의 이름만 알고 대다수의 이름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보집에서는 가능한 한 사진 속 인물들을 파악하여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진 속 인물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보집에 담긴 사진들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현장에 맞닥뜨림을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 때로는 숙연함과 비장함,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 함께라서 느끼는 연대감과 동지애, '그 땀 그 땀' 하는 회상 또는 그리움, Y라는 공동체의 힘 등. 무엇보다 사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며 변화를 외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화보집을 통해 한국YWCA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많은 선배 활동가들의 모습과 다양한 활동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기록으로 남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며, 변화를 향해 햇불을 든 우리의 행진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화보집에 수록된 총 60장의 사진은 연합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만 장의 사진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 차례의 선별 과정을 거쳐, 화보집 연대기별 주제 적합도, 개인보다는 공동체, 운동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선정의 주요 기준인 원고는 연합회 역사서와 역대 전국대회 및 연합위원회, 총회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먼저 연대기별로 특징, 키워드, 시대적 배경, 문제의식, 변화 목표, 주요활동, 변화된 결과를 뼈대를 정리하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원고를 쓰고 연합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감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초기 기획부터 화보집 제작의 전 과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가신 원영희 회장님과 감수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이은영 부회장님, 차경애 전 회장님, 최만자 전 실행위원님, 한국사회와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원고를 보완해주신 손승호 박사님, 초기 사진에 있는 한자를 감수해주신 박장미 교수님. 이 분들의 열정적인 협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기에 이번 화보집이 더욱 완성도 있게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화보집을 준비하면서 우리 활동의 기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과 무엇보다 그 기록을 분실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5장 함께 맞서다 '가족법 개정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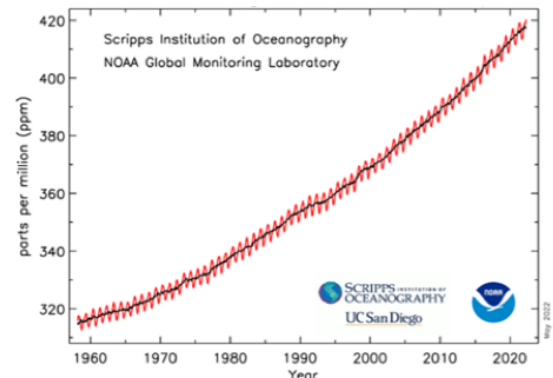
<9장 정의를 외치다 '탈핵생명운동'>

기후위기 해결의 국제연대와 남북협력

|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와이 Mauna Loa 관측소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최근 더 빨라진 듯하다 (그림 1).¹⁾



<그림1 최근 월별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자료: NOAA

기후변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 원인을 먼저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을 통해 대기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만들어내는 온실효과이다. 인간활동은 영향과 교통, 산업활동, 그리고 산림이나 습지와 같은 생태계 훼손과 토지이용 변화, 가정에서의 냉난방과 전기사용, 그리고 먹거리 활동 등이다. 기후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는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 논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남북협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최근 제6차 평가주기 보고서를 발간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 1톤이 배출 될 때마다 기후변화 현상은 더 가중된다고 하며,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핵심 활동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IPCC는 최근의 온실가스 농도나 해수면 상승의 정도, 빙하 후퇴 정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으로 우리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또,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평균기온과 해수면 상승 및 계절의 변화를 비롯하여 홍수와 가뭄, 폭염과 산불, 태풍과 같은 기상현상과 날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빙하의 후퇴와 손실 등 여러 가지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산불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뭄이 이전보다 오래 지속되고, 토양이 더욱 건조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특히,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낼수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기후 리스크를 초래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나라나 사회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태계

가 건강해야 한다. IPCC(2022)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변화는 기후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PCC는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발전(Climature resilient development)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생태계를 근간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인류는 일찍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파악하여, 1992년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고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²⁾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 아래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을 논의해왔다.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그러한 접근법의 대표적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분류되었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배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지지부진해지며 결국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더욱 높아져 기후변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기후변화협약은 결국 2015년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들은 자발적 감축노력(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였고, 기후변화협약은 주기적으로 국제적 이행 점검(Global Stock Taking)을 하기로 하였다.³⁾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협약의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의 CBDR 원칙과 달리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작고,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위해 재원지원 역량배양, 기술이전과 같은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협약의 대표적인 기후재원이다. 파리협정은 전지구적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구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입더라도 신속히 회복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접근을 추구한다. 즉, 온실가스는 줄여서 전 지구적으로는 배출을 '0'로 하며, 전 지구적으로는 회복탄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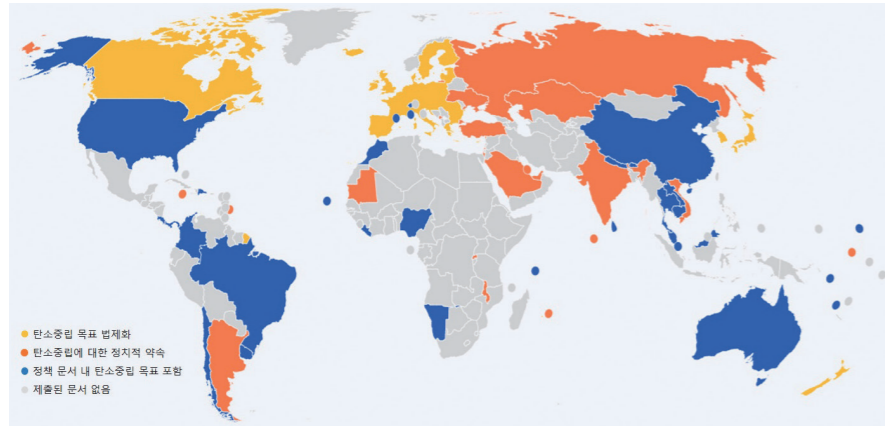
2021년 연말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눈길을 끌었다. 총회에서 채택된 글라스고 기후 합의에서는 생태계의 완결성과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 역할 그리고, 장기적인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생태계 보호와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토지가 황폐화되어가고 생태계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기후변화로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낮출 수 있는데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또한 토지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뿐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과의 기후변화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⁴⁾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협력

북한은 기후변화가 남한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에너지 부족에 따른 땀감 조달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다락밭 조성 등으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어 왔다. 경사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의 경우 산림과 같은 자연환경의 훼손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완충기

2) 당시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3) 파리협정 제4조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인위적인 배출과 흡수노력을 인정하며, 제5조는 산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의 보전·증진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4) 북한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1) 하와이에 위치한 Mauna Loa 관측소에서는 1958년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기록해왔다. 온실가스 농도 추이선에 육상 생태계의 광합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의 영향이 반영된 계절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climatewatchdata
<그림2 탄소중립 세계지도>


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도 산림복원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하는 산림복원은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은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동참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오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 대응하여 북한은 2016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19년 NDC를 제출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16년 외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8%를,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32.25%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여 모두 40.25%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9년에 제출한 2번째 NDC에서는 자체적인 감축 16.4%,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감축 36%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2%로 상향 조정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 북한은 또, 19가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감축

방안은 대부분 에너지 전환과 기술개선에 의한 방안인데, 지속가능한 산림확대와 농업업과 같이 생태계와 관련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과 서해안의 생태계 보존체계 및 자연보전지역의 관리체계 개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남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북한이 제시한 국제협력 사업과 같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력도 우선순위를 가진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호·복원하여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자연생태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남과 북은 인접하여 이러한 협력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적인 산림복원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훼손 생태계 복원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다양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국제사회의 연대는 남북 기후변화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기후변화 수준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후변화 영향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인접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줄 것이며,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줄여줄 것이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기후회복력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할 위기의 시대

한국YWCA연합회는 2022-2023년 전국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과 지역이 따로 또 같이 운동을 확산해나가고자 연 5회의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을 이어가고 있다. 콜로키움은 전문가의 강의와 소그룹 토론으로 구성되며, 지난 4월 '지역 에너지 정책', 5월 '기후위기와 여성'을 주제로 진행된 제1차, 2차 콜로키움에 이어, 이번 제3차 콜로키움은 6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시작되었다.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우리가 체감하듯 현재 한반도는 긴 여름과 짧은 겨울, 열대야,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이상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다. 분단선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있으나, 한반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사대 한반도의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본 콜로키움의 1부는 '기후위기 해결의 국제연대와 남북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의 강의로 채워졌다.

강의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전력소비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탄소배출량 역시 낮지만,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도시 거주자 외의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나무를 주요 생활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산림훼손문제, 쌀생산 증가를 위한 평안남북도 서해안지역의 간척사업으로 발생하는 갯벌 생태계 파괴의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쌀과 같은 식자재 공급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또한 국제사회를 통해 NDC(자발적 감축 목표) 52% 상향 조정을 표명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정치포럼에서 열린 국가자발적검토편(VNR)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의제' 이행을 보고할 만큼 SDGs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대의 산림보호구역, 서해안의 갯벌지대 등을 활용한 자연기반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남한이 협력한다면, 기후회복력 높은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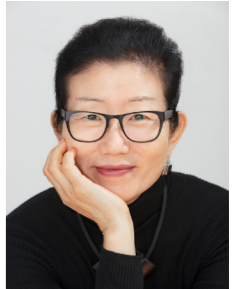


강의 후 이어진 2부에서는 기후위기의 국제적 정책들이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YWCA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조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의 모든 강의들은 Y-아카데미(<http://ywc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토론 모음]

- ◆ 1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한창인 이때에 국제적 정책에 발맞추어 남·북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무엇보다 식수를 포함한 식량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생각하며, 북한 우물파기 운동, 나무 보내기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인과 어린이들에게 개인위생용품과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협상이 우선된다.
- ◆ 2조: 대체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에너지

나·우리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YWCA 100주년, 과제로서의 질문하기



|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존재한다는 것은 상속받는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존재한다는 것은 상속받는다”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살아감 이란 모든 영역에서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다양한 전통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종교, 정치제도, 가족제도, 교육제도 등은 물론 우리가 개입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기구이든,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데리다는 이어서 강조하기를, 그 상속이란 ‘주어진 것 (a given)’이 아니라 ‘과제 (a task)’ 라고 한다.

2022년, YWCA가 1922년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었다. 1855년에 시작된 YWCA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질문과 성찰을 해야 하는가. 한국 YWCA는 상속받은 ‘YWCA 100년의 전통에 대하여 어떠한 과제를 지니는가. 100주년, 200주년, 또는 300주년 등과 같은 숫자 자체가 YWCA의 존재에 자동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단지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만을 예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YWCA의 정체성의 재구성: 세 가지 요소

YWCA란 무엇인가. YWCA의 우선적 정체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청년 (Young),’ ‘여성 (Women),’ 그리고 ‘크리스천 (Christian)’이다. 초기 YWCA는 이러한 외적 구성 요소들을 결정적인 출발점을 삼았다. 이제 창립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속받은 YWCA’를 다각도로 조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 “100주년”의 의미, ‘100년의 YWCA’ 전통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이 시점에, YWCA의 토대가 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그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자명한 것 같은 이 세 가지, 즉 청년, 여성,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자명하지 않다. 탈자연화 (denaturalization) 과정을 통해서, YWCA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하여 ‘뿌리 물음’을 묻기 시작하면서 구성되는 YWCA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고 창출될 때,

개발로 에너지통일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남한은 기술력을 북한은 에너지원을 협력하고, 여기에 남측의 주도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YWCA 역시 북한 어린이돕기 분유 사업을 진행했듯이, 위생과 관련한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3조 : 북한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보고서에서, 조건부 지원을 건 항목이 많다. 남한이 그 조건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고 본다. 북한이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도, 북한 스스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YWCA도 이를 위해 북한 나무보내기, 무전력 정수기 지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교육, 면생리대를 만들어 보내주는 방법 등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4조 : 면생리대 지원과 들불(산불)방지를 위한 나무심

기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단위로 YWCA가 접근하여 깨끗한 식수 확보를 위해 식수 소독제를 보내는 지원 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 5조 : 환경보전연계사업으로 환경보호 토지 관리정책에 대한 북한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면 좋겠다. YWCA는 방역물품을 지원 및 태양광 설치 등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묘목보내기, 상하수도 설치 지원 사업 등을 꾸려볼 것을 제안한다.

◆ 6조 : 오히려 기후위기라는 같은 주제로 국제사회 안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YWCA가 북한에 마을단위로 소소하게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남한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및 기후위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 안소진

(사)대전YWCA 팀장

제3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참여기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 외에 북한의 위생, 보건문제도 함께 대처해야

“반갑습니다. 대전YWCA 안소진입니다” 콜로키움 줌 소회의실에서는 각 지역에서 탈핵기후생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참여자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오늘 주제 너무 어렵죠?”라는 질문에 한바탕 동의의 웃음으로 시작된 토론은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질 만큼 짧고 치열했다. 1부 「기후위기 해결의 국제 연대와 남북 협력방안」 강의 이후 2부 소모임으로 나뉘어 기후 위기의 국제적 정책들이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남북이 긴장상태에 있는 지금, 기후위기 분야가 긴밀한 소통의 수단이 되어 연계를 통해 국제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또한 대체에너지,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해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에너지통일을 이뤄 더 나아가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YWCA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실천에 대해 논의했을 때에는 YWCA가 현재 하고 있는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운동, 모성적인 측면에서 위생과 보건문제를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북한은 자발적인 절약은 아니지만 자연 재해 관련해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기에 기후 관련 프로그램지원 등 국가가 주도적인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모두의 관심이 큰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협조 수치가 높으리라 예상되어지며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내가 속한 2조의 발표 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대전 YWCA의 활동가로서 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기후위기가 무관하지 않다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YWCA 100주년’의 의미가 확장되고 심화될 것이다.

첫째, ‘청년’이란 누구인가. 아마 이 질문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명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 YWCA는 ‘청년성’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생물학적 청년성, 그리고 둘째는 정신적 청년성이다. YWCA가 창설되던 시기에 이 ‘청년’의 우선적 범주는 물론 생물학적 청년성이었다. 그러나 개인이든 또는 단체든 ‘정체성’이란 절대적으로 고정될 수 없으며, 고정되어서도 안 된다. 정체성이란 정황과 방향성 또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명되어야 하며,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YWCA 회원이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청년’의 범주에만 구분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곤 하는 생물학적 범주인 ‘청년’ 또는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범주가 지닌 의미를 복합화시키는 것이 21세기에 요청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 청년성’이란 지속해서 호기심을 작동시키고,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열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 세계에 대한 개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 개입을 위해서 자신의 인식 세계를 확장하고자 ‘학습’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변화와 압에 대한 열정, 변화를 위한 적극적 개입에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인식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 이 네 가지 요소를 자신속에 가꾸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정신적 청년성’을 지닌 이들이다. 생물학적으로 청년이든 아니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 청년성을 이루고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이란 누구인가. 페미니즘은 여성 운동이며 이론으로 출발하고 전개되어왔다. 페미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 규정이 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

고, 동시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주장이다”라고 나는 본다. 여기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기본적 토대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여성 대회(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의 배우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라는 유명한 선언을 했다.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여성 차별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평등성을 인식하는 ‘주관적 차원의 변화’, 그리고 동시에 제도적 장치의 평등을 확보하는 ‘객관적 차원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YWCA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YWCA의 출발점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YWCA의 도착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스 여성과 남성(cis-gender: 태어날 때 지정된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트랜스 여성과 남성(trans-gender: 태어날 때 지정된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또한 장애, 종교, 국적 등 다양한 배경의 ‘모든’ 인간의 평등과 권리 확장이어야 한다. 결국 ‘여성의 권리’란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의 권리’란 ‘모든’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YWCA는 ‘크리스찬’ 단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의미의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자명한 것 같지만 전혀 자명하지 않다. 단지 교회에 등록하여 ‘정식 교인’이 되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기독교가 말하는 전통적 교리에 무조건 ‘아멘’하고 수용하는 이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성서의 ‘예수’가 가르치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는 소위 ‘최후의 심판의 비유(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즉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소위 구원의 6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최후

의 심판’이라는 엄중한 비유에서 제시하는 6가지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범주에 언급은 전혀 없다.

배고픈 사람(the hungry), 목마른 사람(the thirsty), 낯선 사람(the stranger), 헐벗은 사람(the naked), 병든 사람(the sick),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the imprisoned)에게 어떻게 했는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의미, 신을 사랑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나 회당에 등록교인인가, 매주 주일성수 했는가, 헌금을 했는가 등과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구성요소는 전혀 없다. 유일한 기준들은 타자들에 대한 책임, 환대, 연대, 사랑을 했는가 아닌가 등과 같은 것이다. 예수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씨름해야 하는 커다란 ‘질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병듦, 이방인됨, 또한 감옥에 갇힘 등의 의미란 무엇인가. 거시적 정황만이 아니라, 미시적 정황에서 이러한 여섯 가지 범주의 문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학습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몰랐다’ 라고 하는 ‘무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한국에서 현재 포괄적차별금지법 법제화 반대, 타종교혐오, 성소수자 혐오, 난민혐오 등에 앞장 서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지닌 이들이다. 이렇게 다층적 혐오에 앞장서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최후심판’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YWCA가 그 종교적 정체성을 “크리스찬=교회 등록교인”이라는 상투적 이해로 고착시킬 때, YWCA의 방향성이나 존재의미 역시 ‘상투성의 늪’에 빠져서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YWCA는, 타종교에 대한 혐오가 극치를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면서, YWCA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의미로서 한국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아닌, 평등과 포용의 원을 확장

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YWCA 100년”이라는 유산상속: 세 가지 과제

데리다의 말 처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한 전통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이다. ‘상속’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그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데리다는 상속이란 ‘주어진 것(a given)’이 아니라 ‘과제(a task)’라고 한다. 무슨 의미인가.

첫째, 인정(affirmation)의 과제다. 이 과제는 Y의 과거 전통과의 ‘연속성’의 차원을 지닌다. 지난 YWCA가 해 온 일, 확산하고자 하는 가치들 등 Y의 다양한 ‘유산’들에서 앞으로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야 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인정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Y유산’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둘째, 문제제기(contestation)의 과제다. Y의 전통에서 이제 지양해야 할 것들, 불연속성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들 등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불연속성’을 작동하는 것이다. ‘100년의 Y’ 유산에 대한 과제는 밝고 좋은 것만 찾아내는 ‘낭만화’가 아니라,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들까지 보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전통의 창출의 과제다. ‘이미의 YWCA (YWCA of Already)와 ‘아직 아닌 Y(WYCA of Not-Yet)’ 사이에 서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YWCA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확장하는 과제를 지닌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YWCA 100년”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과거 Y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YWCA’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YWCA 100년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방식일 것이다. 🌱

여성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출처: <https://www.afrik21.africa/en/egypt-ebrd-promotes-women-entrepreneurs-in-renewable-energy/>>

기후 위기 대응 과정의 일자리 변화

기후 위기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2021년 한국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상향안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기업 경쟁력 약화, 국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러나 상향안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에는 부족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50년까지는 84%를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농업·임업·토지이용, 운송과 건물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변화가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 변화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다. 전환의 주요 대상으로 예상되는 한국 탄소유발계수 상위업종사자 3,142명 중에는 여성이 767명으로 21%에 달한다. 전기·가스공급, 1차금속, 항공운송,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업종이다(김종진, 2021).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그린피스(2022)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건물 개조, 전력망 업그레이드, 산업 기계,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분야는 일자리 증가가 단연 눈에 띄는 분야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에 3800만, 2050년에 4300만 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IRENA, 2021).

사라지고 줄어드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으로 노동 불안 느끼고 있는 분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들 수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이 발전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634명 중 92.3%가 발전소 폐쇄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증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는 까닭은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 사이의 시간·지역 차이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일에 대한 두려움, 경력과 연봉 등 이전 고용수준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통과 비용이 특정 지역, 노동자, 공동체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다. 전환의 결과와 과정이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1970년대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 이래로 북미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에서 발전시키고, 2000년대 국제노동운동의 중요 가치로 수용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 2018년 살레시아선언에 포함될 정도로 국제 기후위기 대응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캐나다, 독일, 호주는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도 수행했다.

한국에서도 2021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만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지역 내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운동의 언어로써, 정의로운 전환은 확장과 변이를 거듭했다. 초기에 노동자 고용 안정과 대체고용 및 보상과 지역사회 지원 위주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제도화를 거치며 사회적 대화, 기업 지원과 규제 등 프로그램까지 포함했고, 더 나아가 개념 자체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체제 전환으로 심화·확장되었다(한재각·정보영, 202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기후위기가 성별, 인종, 소득과 선주민 등 다양한 차별과 억압의 체계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기후부정의를 지적하고, 지속가능 전환의 정의로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환경개발기구(WEDO)는 정의로운 전환이 성별분업과 지배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며, 성별, 인종, 계급 등의 교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여성할당제,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소득지원 등의 방법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과 성평등 노동이 만나는 지점은 양질의 지속가능하고 덜 차별적인 노동에 대한 열망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성평등 일자리

기후위기 시대의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무엇보다 차별 없고 덜 배제적인 일자리여야 한다.

제철·석유화학·자동차 같은 중화학공업은 한국 성장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었지만, 남성 노동자 중심의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형성한 현재 경제체제의 근간이며(홍은주, 2020)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화석연료에 바탕한 현재의 경제체제 변화는 에너지원과 일자리의 변화만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노동 분업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반되어야 한다.

새로 생겨날 일자리의 성평등 담보는 왜 필요할까. 지속가능한 2020년 전 세계 1200만 명의 재생에너지 종사자 중 여성은 32%에 불과하다(IRENA, 2021).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비기술적인 운영행정과 홍보 분야의 45%




<출처: <http://feministgreennewdeal.com/2021/09/21/building-narratives-for-a-caring-green-economy/>>

가 여성인 반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분야는 28%만이 여성이다. 교육 문제는 아니다. 대학교 유관 전공의 여성 비율은 반절을 넘는다. 특정 분야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다.

기후위기가 심화는 더 잦고 심한 자연재해와 감염병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위기 적응이 중요해질수록 보건·돌봄·복지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미래의 돌봄 일자리마저 저평가되는 안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대응에서처럼 여성의 돌봄과 헌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돌봄일자리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사회생태적 가치를 지닌 일자리다. 기후위기 시대의 돌봄 일자리 질 개선과 재평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의제에 속한다.

어떤 일도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과거 영국과 미국 탈석탄 과정에서 탄광 지역 여성은 실직한 가장을 받아주는 감정노동, 육아와 가사에 더해 생계노동의 부담을 추가로 졌다(Braunger et Walk, 2022). 집안에서 일어나는 무급돌봄노동 역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일로 마땅한 주목을 받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과정에서 다뤄야 할 노동은 현재 발전소나 내연차,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받을 영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현재의 성차별적이고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을 성평등하면서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늠할 시점이다. 

대안가족을 이루다

| 대학·청년YWCA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호적상 부모-자식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들을 가족이라 부르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며 결혼제도에 얽매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많아지고, 친구들끼리, 커플들끼리 사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우리는 이들을 가족과 같다고 하지만 제도는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번 청년토크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너는 '정상가족'이야?

하나 :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웃기지만 나는 부모님이랑 오빠가 있으니 사회가 말하는 정상가족은 맞아.

영희 : 제도상에서의 나는 정상가족이지만 지금 나는 가족들과 거의 소통을 안하면서 혼자 살고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비정상가족인 것 같아.

하나 : 나도. 남자친구랑 둘이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가족이야.

철수 : 나는 이혼 가정이라 어머니랑 나 단 둘이야. 그럼 나는 비정상적인건가?

하나 : 비정상은 아니지. 어쨌든 한부모 가정이라는 제도에 인정받으니까.

철수 : 근데 난 작은 실수만 해도 “너 같은 집안 애들은 어딜 가나 문제야”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 사람들의 인식속에선 나는 비정상 가족인거지.

민수 :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핵가족을 말하는 것 같아.

영희 : 그렇지. 그럼 정상가족은 얼마나 될까?

하나 : 이 세상에 정상가족은 3%밖에 안 된대. 겉으로는 정상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가정폭력과 학대,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형태는 정상적이지 않잖아?

'정상가족'이 만드는 사회적 폭력

민수 : 정상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 사소한 폭력을 만들어.

철수 : 부모님이 없거나 이혼했거나 입양하거나 재혼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일 경우에 생기는 낙인이 너무 많아.

하나 : 그래. 철수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누군가와 새로 만나면 가족에 대한 질문을 너무 가감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

영희 :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뭐하시는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묻거나 여성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남성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

민수 : 모두가 당연하게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 얼마나 난감할까? 계속 상처를 받겠지.

영희 : 정상가족 자체도 문제야. 우리는 정상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

하나 : 맞아.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범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

철수 : 쉽게 뺏은 말들이 우리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어. 이걸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비정상이니깐.

지금 너의 가족은 누구야?

하나 : 옛날이야 생존이 중요한 시기였으니 가족을 이루고,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중요했지.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코로나19까지 지나면서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영희 : 맞아. 굳이 나의 돈과 시간을 쓰면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민수 : 나도. 그냥 내가 번 돈 나 혼자 쓰면서 재밌게 살고 싶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영희 : 나는 5년 동안 남자친구

랑 동거하고 있는데 우리 둘은 결혼은 생각이 없어서 평생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최근에 우리는 제도상의 가족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

민수 : 왜? 둘이 같이 살면 그냥 가족인 거잖아.

영희 :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을 갔는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 응급실에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수술동의서에 사인도 못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 생각했어.

하나 : 제도화된 가족이 기본인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민수 : 법 내에 있는 가족들 안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법외 가족들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너무 차별받아. 나는 철수랑 둘이 3년 정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세대출할 때 너무 현실의 벽을 느꼈어.

철수 : 맞아. 혼자 사는 청년들 대상으로만 주거제도가 있다 보니 청년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둘이 살기 좁아. 좀 큰 평수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신혼부부가 되는 것 뿐인데 우린 안 돼.

민수 : 우리는 둘다 결혼 생각이 없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같이 살 거거든. 우리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영희 : 이젠 대안가족 형태를 인정해 줘야 돼. 나는 혼자가 너무 편해서 결혼도, 동거도, 친구랑 같이 살 생각도 없어.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아플 때, 죽었을 때 아무도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대안가족(alternative family)

1) tvN 예능 프로그램 <조립식 가족>: 자발적으로 가족이 된 조립식 가족,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관찰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철수 : 생각해 보면 세상엔 정상가족도, 비정상가족도 없어.

영희 : 가족이라는 것은 중요해. 혼인과 혈연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구성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야.

철수 : 정상부모와 정상자녀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이미지의 중심이 되서는 안 돼. 내가 직접 선택한 커뮤니티의 형태가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해.

하나 : 요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공동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조립식 가족>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영희 : 실제로 유럽에서는 대안가족을 인정해 주고 있어. 프랑스는 '팍스'라는 결혼제도를 도입해서 동성커플이 결혼한 부부들과 똑같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철수 : 한국의 주거와 건강에 관련된 복지는 너무 법적 혼인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도 이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돼.

민수 : 그래 '생활동반자법'이 생기면 동성애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야. 친구끼리 사는 가족, 동료끼리 사는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해.

하나 : 외롭지 않을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현실의 벽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핵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해.

‘N번방’이라는 빙산의 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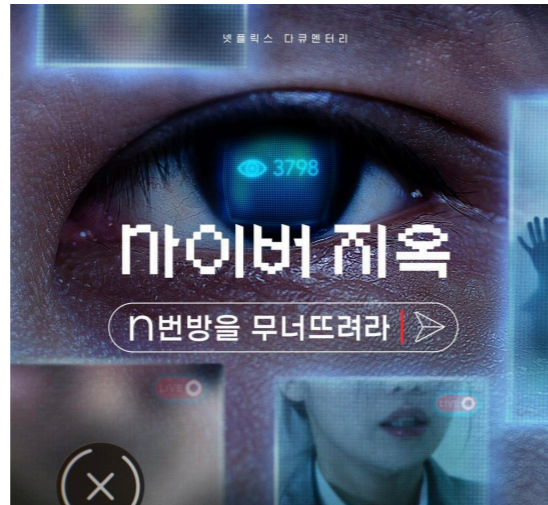
| 오수경

<드라마의 말들> 저자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통해 여성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력을 일삼은 ‘N번방’의 실체가 공개된 것은 ‘COVID-19’ 바이러스 공포가 우리 일상을 덮치기 시작한 2019년 2월이다. 가해자들은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방식이 경악스러웠을 뿐 아니라, 경찰에 의해 파악된 피해자 1154명 중 60% 이상이 20대 이하 여성 청소년이었고, 영상 소지 및 배포 혐의자를 중심으로 경찰이 발표한 가해자만 최소 6만 명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었다. 평소 젠더와 성폭력 이슈에 둔감했던 이들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공분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할 정도로 이 사건의 파장은 꽤 컸다. 그 결과 문형욱(갯짓), 조주빈(박사) 등 N번방을 설계하고 운영한 주범들은 검거되어 문형욱은 징역 34년에 전자발찌 30년 형을, 조주빈은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상태다.

‘사이버 지옥’이 드러낸 것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이하 <사이버 지옥>)은 N번방의 존재를 추적하여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고, 주요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세우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시민, 기자, PD, 경찰 등 24명의 인터뷰를 통해 N번방 추적기를 복원한 다큐멘터리다. 지난 5월 공개된 이후 자극적인 설정보다는 차분하게 N번방 사태의 맥락과 의미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호평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 이미지 : 넷플릭스>

속에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 관심을 받았다.

<사이버 지옥>은 N번방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가 차곡차곡 쌓은 문화의 결과임을 거듭 강조한다. 즉, N번방 이전에 무수한 ‘N번방’들이 존재했다는 말이다. 멀게는 1997년 ‘빨간마후라’ 사건부터 비교적 최근 ‘버닝썬’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남성 중심 문화와 산업은 한 번도 불황인 적이 없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만 유통되던 ‘방(Room)’ 문화는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소라넷’ 등 성범죄를 도모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했고, ‘위디스크’나 ‘파일노리’ 같은 ‘웹하드’는 호황을 누렸다. 이런 흐름은 소위 ‘벗방’이라 불리는 라이브 채널로 발전하여 N번방의 구조의 모태가 되었다. 주로 가출 여성 청소년이 타깃이 된 랜덤 채팅방도 성착취 산업의 일부로 활용되었다. 즉, N번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착취 카르텔이 별다른 저항과 규제 없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방에서 방으로 외피만 바뀐 상태로 대를 이어 이어진 결과물이다.


남성들의 문화를 연구한 <남자들의 방>의 진단처럼 “타자(여성)를 멸시하고 혐오하고 한 단계 낮춰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타자로 다룸으로써 이와 상반되는 통제권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자인 남자”들의 공간은 “특별한 곳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 곳곳에서 형성”되어 셀 수 없이 많은 “남자들의 방”을 생산한 것이다. <사이버 지옥>에서 인터뷰에 나선 이들이 입을 모아 이런 구조를 ‘협업’이라 일컫고, <사사인> 천관을 기자가 ‘협업적 성착취’라 명명한 데는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즉 이런 구조를 직면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과 여성의 정체성이 착취와 희롱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사이버 지옥>은 집요하게 환기한다.

<사이버 지옥>은 왜 이런 구조가 생겨나고 존재했을까는 질문을 넘어 피해자들이 왜 ‘신고’를 못 했는가에도 주목한다. 여성(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 가해자들은 SNS나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익명으로 해킹 링크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한다.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촬영해 보내라고 하여 그곳에 적힌 학교나 이름 등을 알아내 확보된 신상을 무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려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들을 공포에 빠뜨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알려겠다”는 그 말은 왜 피해자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가해자의 협박 도구가 되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이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얼마나 나를 비난할지 너무나도 잘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을 비난하며 가해자를 ‘정상참작’하여 선처할 준비가 된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의 범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성들의 ‘방’ 산업과 함께 여성의 성을 억압하며 피해자들을 다그치는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지옥>이 또 주목한 점은 법과 제도와 문화가 손놓을 때 ‘시민’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2018년 ‘추적단 불꽃’이 없었더라면 N번방의 실체는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진 여성 시민들과 무수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들의 ‘협업’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N번방들이 성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즉 이 사건은 평범한 시민들의 ‘협업’의 승리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고 <사이버 지옥>은 말한다.

‘사이버 지옥’을 무너뜨리려면

N번방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N번방을 향한 분노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몇몇 주범을 잡고, 몇 백 명 기소했다고는 하지만 ‘집단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범죄 그물에서 대부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 잘 살고 있으며 ‘남자들의 방’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또한 N번방이라는 사건을 특수화하거나 악마화하여 마치 자신들의 세계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시선이나 “재물이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라는 시선, 혹은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시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다시 말하지만, N번방은 저절로 잡지기 생긴 게 아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물건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고 거래하는 걸 문화나 정치(큰 일)로 여기거나, 그걸 산업으로 키운 결과가 N번방인 것이다. <사이버 지옥>은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일부 ‘악마’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 평범한 남성들이 만든 ‘집단 협업’의 결과물이며 사회 시스템이 이걸 방관하는 동안 이 방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추적한 건 용감한 시민들이었다고.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전히 이런 문제 해결을 개인의 용기와 헌신에만 기댄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사이버 지옥>이라는 빙산의 일각을 보며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YWCA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법인화 절차



|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공인회계사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YWCA의 재구조화 정책이 박차를 가하면서 약 38%의 회원 YWCA의 법인화가 완료되었고, 다른 회원 YWCA도 2022년~2023년 중 재구조화 추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매우 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결코 쉽지 않은 조직개편의 결정을 한 YWCA의 구성원과 회원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동시에 법인 전환이라는 까다로운 행정업무를 겪어야 할 회원 YWCA 실무자들의 고생이 벌써부터 염려되기도 한다. 본고는 법인 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회원 YWCA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법인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법인화를 하는 이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화를 하는가? 법인화를 계획 중인 회원YWCA는 제일 먼저 위 질문에 관하여 조직 내부의 고민을 통해 각자의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그간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회원이나 기부자를 확대하거나, 각종

공공 또는 민간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YWCA의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로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법인전환을 결정하였다면, 먼저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 YWCA는 사단법인의 유형으로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하의 설명은 사단법인을 전제하였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i) 설립허가와 (ii) 설립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32조, 제33조).

(i) 설립허가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과정으로, 주무관청의 결정, 정관 등 주요 서류 작성, 기관의 구성, 사업계획의 확정, 기본재산의 확보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법인전환 업무 부담의 측면에서는 설립허가의 단계가 가장 비중이 크며, 준비 및 허가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 부처의 소관사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무상 사무실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지 않은 이상 중앙부처보다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주무관청으로 결정하고 있다. 주무관청 결정 이후에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무관청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으나 정관, 임원 명단, 사무소 증빙서류,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 사무소 소재지, 이사회 운영, 재산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서류의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결을 얻고 내용을 확정한다. 이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특별한 보완요청사항이 없다면 설립허가증이 발급되며 설립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참고로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설립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ii) 설립등기는 설립허가절차를 통해 득한 설립허가증 및 기타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인 설립허가가 있었던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49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민법 제97조). 사단법인은 이러한 설립등기까지 마침으로써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된다(민법 제33조). 설립등기의 경우 특별한 서류보완요청이 없는 이상 1주 이내에 완료되며, 등기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고유번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무관청에 대해서는 설립등기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 등의 지정신청

(iii)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사단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는 경우, 해당 법인에 기부되는 금액은 기부자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이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이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령하는 기부금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 세제혜택효과가 발생한다(상증세법 제48조 참조). 대신 이러한 세제혜택의 대가로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은 이후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세법상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의 지정은 각 분기 말에 이루어지므로 신청시기를 유의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규모화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만일 기부금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사업 지원 등의 이유로 향후 법인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기존 회원YWCA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나 각종 계약, 고용관계를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절차가 필요한데, 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영업양수도 업무가 번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부적으로 법인화에 대하여 충분한 숙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관련 행정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일 것이다. 

질문 빈곤을 넘어 함께 잘 살아감에 대하여

| 이예림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2022년 한국YWCA의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중 하나인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으로 사람책방이 기획되었다. 2021년 12월 21일, '김초엽 작가와 떠나는 무한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28일에 두 번째 사람책방이 열렸다.

'사람책방'이란 한 인물을 책이라고 가정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설명과 질문 등을 주고받는 열린 인터뷰이다. 사람책방을 통해 해당 인물의 생애와 가치관, 그동안 얻었던 교훈 및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한국 YWCA 100주년을 맞아 국내 외의 여러 리더십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리더를 키워나갈 수 있기에 이번 기념 사업에 사람책방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람책방은 선착순 현장 참여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도 추가로 진행하였다. 유튜브 생중계에는 실시간 자막을 사용하여 장애 및 환경적 문제를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지 품으로 질문을 받았다. 현장에서의 질문도 추가로 받음으로써 사람책방의 전체적인 참여도를 높였다.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두 번째 사람책방: 강남순 작가

질문 빈곤을 넘어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

PART 1 :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PART 2 :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

- 2022. 05. 28 (토) 14:00 - 15:30
- 현장참여 선착순 20명
& 유튜브 라이브 중계 YWCA KOREA 채널

- 참가신청 및 질문 남기기 : 구글 폼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 5. 25(수)까지

질문 빈곤 사회
비밀의 나라
세상에 관하여

두 번째 사람책방의 주인공은 강남순 작가였다. 이번 사람책방에서는 강남순 작가를 섭외하여 '질문 빈곤을 넘어 함께 잘 살아감에 대하여'에 대한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강남순 작가는 이전 YWCA에서도 오랜 활동을 해온 인물이며, 현재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이다. 현대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담론들을 가르치고, 코스모폴리탄 권리, 정의, 환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을 두어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남순 작가는 '질문 빈곤 사회',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정의를 위하여' 등 수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번 사람책방에서는 그의 서적 중에서 '질문 빈곤 사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사람책방의 주제는 '함께 잘 살아감'이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 내용을 2개의 파트로 나누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해결법의 질문을 준비했다. 각각의 파트 모두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YWCA의 의미에 들어가는 청년, 여성, 종교인(기독교인)에 대한 내용과 지금의 한국 YWCA와 앞으로 한국 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도 준비하였다.

이번 대선은 환대의 정치가 아닌 젠더 갈등을 비롯한 약자를 향한 혐오를 이용한 선거였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청년, 여성,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번 사람책방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사람책방은 100주년 청년참여단의 김예지 회원과 이예림 회원이 진행하였다. '청년들의 이기심',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기검열', '한국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혐오' 등 YWCA의 각 부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남순 작



가는 인터뷰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였다. '자기 검열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라', '자기 자신과 상의하라' 등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도 챙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닌 정신적인 차이', '세대의 갈등은 미디어의 문제' 등 청년에 관한 질문에는 조금은 모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 진행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질의응답 시간에 부족함을 느꼈다.

사람책방의 진행이 끝난 후, 현장 참여자들이 강남순 작가에게 사인을 받으며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책과 강남순 작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사람책방을 통하여 현장 참여자들과 유튜브 생중계 참여자 모두 좋은 답변을 얻었길 바란다.

사람책방이 끝나면 각 회차의 주인공은 나무 배너에 사인을 남긴다. 강남순 작가도 나무 배너에 사인과 코멘트를 남겼다. 나무 배너가 사인으로 완전히 덮이질 때까지 다양한 리더십을 만나며 사람책방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한다. 사람책방은 앞으로도 계속 청년과 함께 이어지길 희망한다.

한국YWCA, 전국동시다발 지방선거 캠페인 전개해

- 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41개 지역에서 캠페인 벌여
- SNS를 통해 성평등, 청년, 탈핵·기후, 평화·통일 4개 부문에 대한 주요정당정책 알려
- 각 지역 후보 및 정당에게 구체적인 공약 요구

<p>한국YWCA의 제안</p> <p>한반도 평화 체제와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p> <p>동의하신다면?</p>	<p>한국YWCA의 제안</p> <p>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경제적 정의가 필요합니다!</p> <p>동의하신다면?</p>
<p>한국YWCA의 제안</p> <p>핵발전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과 구체적인 기후위기대응정책이 필요합니다!</p> <p>동의하신다면?</p>	<p>한국YWCA의 제안</p> <p>성평등 정책이 실효성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과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p> <p>동의하신다면?</p>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41개 지역에서 지방선거 대응 캠페인을 전개했다.

각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구조적 차별 개선을 위한 성평등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공약,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요구하였고 거리의 시민들에게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SNS를 통해 성평등, 청년, 탈핵·기후, 평화·통일 4개 부문에 대한 주요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정책을 알렸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당들을 태그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 8만 회원과 함께 청년이 생존할 수 있는 세상, 구조적 차별이 없는 사회,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지방선거 캠페인 진행 지역**

강릉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거제YWCA, 군산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천YWCA, 상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진주YWCA, 창원YWCA, 천안YWCA, 춘천YWCA, 충주YWCA, 포항YWCA, 하남YWCA



2022 아시아YWCA 지역회의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지난 6월 10일 금요일, <2022 아시아YWCA 지역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YWCA 자매들과는 2년만의 만남이었는데요.

대면으로는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근황을 나누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WPS; 여성·평화·안보

2022년 아시아YWCA 지역회의의 주제는 WPS(여성·평화·안보)였습니다.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WPC를 주제로 기초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죽음을 맞이한 3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기억하며 전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왜 평화가 중요한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서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서로 떨어져 있지만, 평화의 이수만큼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평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명제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됩니다. 이제 세계는 기후위기의 문제에서도, 에너지의 문제에서도, 식량난의 문제에서도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습니다. 각 세계에, 또 아시아에 흩어져있는 YWCA의 연대와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두의 평화를 향해 전진할 때 우리 YWCA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UNSCR 1325)입니다. UNSCR 1325는 전쟁과 분쟁의 상황에서 여성이 어떻게 더 피해를 입는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성이 어떻게 평화협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 구조에의 참여, 여성 인권의 보호, 갈등 방지에 있어서의 젠더 관점, 회복 과정에서의 젠더감수성의 네 단계를 YWCA의 평화운동을 세우는 뼈대가 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갈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UNSCR 1325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여성이 평화 과정에 참여할 경우 회복 과정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YWCA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일어나고, 말해야 합니다.

한미미 부회장은 세계YWCA의 목표, Goal 2035을 마지막으로 기초발제를 마쳤습니다. Goal 2035는 말합니다. "2035년까지 1억 명의 여성 청년과 소녀들이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정의, 성평등,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YWCA 운동을 이끈다." 아시아YWCA가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하여 전개할 여성·평화·안보 운동이 만들어 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국가 보고

기초발제에 이어서 각 아시아YWCA에서 WPS와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소식 몇 가지 전달드립니다!

① 한국YWCA

한국YWCA의 국가 보고는 연합회 조은지 부회장이 발표해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되었던 대선 정책운동, 공공 홍보물 성차별 표현 모니터링 사업, 여성평화순례와 국제 연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인도Y 코로나 긴급 지원사업, 미얀마 민주화 지지 활동, 우크라이나YWCA 회복운동 지원까지 전 세계의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한 회원YWCA와 모든 회원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한국YWCA의 평화운동이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② 홍콩YWCA, I-watching 운동

홍콩YWCA의 청년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I-watching 운동은 이미지에 기초한 성폭력(IBSV; Image-based sexual violence)과 사이버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홍콩Y는 먼저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해 IBSV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전개되는 폭력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홍콩YWCA 청년들을 보며, 세계YWCA 2035 목표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③ 일본YWCA, 한일Y 청소년협의회


일본YWCA는 한국YWCA와 함께 연대하여 한일Y 청소년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일Y 청소년협의회는 사회적 공통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행동계획까지 세워보는 청년교류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LGBTQ+와 종교'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양국의 청년들은 온라인에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안전한 대화 공간을 마련해가는 여성 청년들의 모습에서 WPS의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미얀마YWCA의 평화운동

미얀마YWCA는 군부 독재 이후 여성들의 경제를 위한 교육, 소녀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교육을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얀마YWCA, 여성들을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운동에서 미얀마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는 기도 & 닫는 기도

아시아YWCA 지역회의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는 기도는 작년 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예배문으로, 닫는 기도는 여러 에큐메니칼 예전을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여는 기도와 닫는 기도 모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를 찬양하며 함께 연대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느덧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시아 곳곳을 휩쓸며 낸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복의 시기에도 손을 맞잡고 공동의 목표, 여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시아YWCA의 이름으로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




6월 15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사노동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 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인 6월 1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재 마련된 시행령에 관한 우려점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채 법이 통과되었던 것인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역시 여러 우려점이 있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가사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에서 주최하였으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가 사회를 담당했다.

기자회견은 발언에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을 시작으로 송미령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과 서울YWCA 최은자 돌봄회원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사법 안착과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가사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퍼포먼스를 통해 가사노동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은 “가사노동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1:1의 노동인 관계로 노동자의 인건비가 수익의 전부인 상황에서 제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면 가사서비스의 비용 상승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며 날로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비영리 생태계 구축과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일자리 위탁, 가사노동자들의 직업 훈련, 제공기관에 대한 장기적 운영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YWCA 소속의 최은자 돌봄회원은 “1966년 처음 선보인 가사도우미 직종은 50여 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4대 보험과는 상관 없는 비공식부문, 소위 그림자 노동으로 지내왔다” 고 밝히며 시행 예정인 가사법이 정부가 인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나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 오히려 대다수의 가사도우미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기에 YWCA와 같은 공익단체와 소속 도우미들도 가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되도록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가사돌봄정책을 많이 펼쳐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가사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내일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박탈당했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본 법률은 법 통과 과정에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는 등 부족한 상태로 통과되었다. 정부가 현재 마련한 시행령도 여러 우려점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려지점을 짚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이다. 가사노동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1대1 노동인 관계로 오롯이 노동자의 인건비가 수익의 전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가사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 기관들이 가사노동을 중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날로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비영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일자리 위탁, 직업훈련, 장기적 운영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온전히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둘째, 가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가사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에 한한다. 그 외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적용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사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시범실시 예정인 상병수당에서도 자연스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기준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왔지만 가사법이 통과된 지금, 기준을 미룰 이유가 없다.

셋째, 공공 가사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고령층, 한부모 등을 위한 공공 가사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노동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일수록 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로 받아안아 전국단위의 서비스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공공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들이 제공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사법에 의한 제공기관들은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4대보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사노동자들이 그간 박탈당해왔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가져온다. 가격경쟁력의 상실은 고객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30~50% 수준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가사노동자 단체들은 지난 10년 넘는 세월동안 법의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2. 6. 15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연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17개 YWCA(고양, 광양, 군산, 남양주, 목포, 부천, 사천, 성남, 여수, 인천, 원주, 진주, 진해, 춘천, 충주, 포항, 하남) 총 32명의 신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2 YWCA 신입이사교육이 6월 23일(금) 서울YWCA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YWCA의 목적과 정체성 이해(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YWCA 목적이 운동으로 실현된다.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중심으로(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YWCA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해(김경수 공익법인센터 대표)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신입이사교육인만큼, 교육에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사전설문을 통해 이사들께서는 ‘YWCA 깊은 이해와 비전’, ‘YWCA 운동 방향 이해’, ‘YWCA 이사로서 역할’, ‘회원Y 이사들과의 만남’, ‘신입이사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기대를 남겼다.

100주년을 넘어 지속가능한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YWCA는 재구조화 과정으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공공성과 책임성, 자치성을 지닌 시민운동단체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변화의 와중에 임기를 시작한 회원YWCA 이사들을 위해 올해 신입이사교육은, 무엇보다 YWCA가 시대와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명확히 알고,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운동의 내용들과 비영리단체의 이사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내용을 진행하였다.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를 위해 장윤재 교수가 ‘YWCA의 목적문 이해’를 제목으로 강의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생명)’을 목적으로 일하는 YWCA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와 생명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상이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아닌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온 생명이 누리는 평화를 위해 지금의 여

러 위기의 상황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격려했다.

‘에너지전환과 원전’을 제목으로 강의한 김혜정 전 이사장은 YWCA가 ‘정의, 평화, 생명’운동으로서 탈핵운동을 시작했음을 조명했다. YWCA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의 위험성과 파괴력,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원자력에너지의 부정의함을 알리며 지금까지 탈핵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역행하여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국사회에서 YWC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수 대표는 ‘굿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사회 역할(방향설정, 자원조달, 관리감독)과 책임(돌봄의 책임, 준수의 책임, 충성의 책임)을 이해하고,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YWCA 거버넌스 유형이 대체로 이사회와 실무진이 분명한 업무분장을 토대로 하는 ‘협력형 이사회’라고 정리하고 이사회와 사무총장(실무진)의 공유된 책임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고, 신입이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탈핵버스 타고 부산역에 모인 시민들 고리2호기 폐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여진경

(사)부산YWCA 국장



6월 18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들~들~들~들~ 통이 굴러간다. 드럼통에 새겨진 ‘WARNING’ 글자가 보는 이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한다. 그 통은 다름 아닌 핵을 가득 담은 드럼통이었다.

오늘 부산역에서 범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더니 어느새 부산역 광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광주, 진주, 창원, 제주도에서부터 ‘고리1호기 폐쇄’를 외치기 위해 뜨거운 태양별도 마다않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 보였다. 마치 짐질방에 앉은 듯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무슨 일을 작정한 듯 의미심장한 표정이었다.

6월 18일은 5년전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된 날이다. 고리1호기를 폐쇄시켰던 부산시민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윤석열정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예정된 시각, 준비된 무대 위로 누군가 올라간다. 무대 위엔 “고리2호기 폐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반대!” 외침이 플래카드에서도 들린다. 자세히 들어보니 각 지역의 이야기였다. 부산YWCA 김정환 사무총장,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윤여림 어르신, 영광군 농민회 노병남 회장, 탈핵운산시민공동행동 이현숙 상임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은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외쳤다. 무대 위든, 아래 부산역 광장 바닥이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저마다 손에 든 메시지로 소리를 지른다.

‘고리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이제야 알았다. 범상치 않은 움직임은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다시 내딛는다. 탈핵을 향한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모으기 위해 거리로 일제히 나아간다. 고리1호기 폐쇄로부터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이루어 낸 힘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반대로 이어진다.

창녕 우포에서 온 우창수&김은희 선생과 개똥이어린이에 술단과 함께 부른 노래는 지금도 귓가를 맴돈다.

‘모두가 꽃이야~♪’, ‘이제 그만~ 탈핵은 이제 그만~♪’

|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6.18 전국탈핵행동 선언문 |

40년 동안 수고했다, 잘 가라 고리 2호기!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2017년 6월 18일, 5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날이다. 수명연장 10년을 포함하여 40년 동안 가동됐던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는 탈핵 사회와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800만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였다. 그리고 5년 전 오늘 이곳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탈핵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토록 열망해왔던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탈핵은커녕, '핵발전 강국'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마치 핵산업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제 성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후위기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 연장 시도는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는 계획이다. 이 곳 부산의 고리 2호기는 윤정부가 추진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수명연장이 아니라, 영구 정지하고 폐로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40년의 가동을 멈추고 내년 4월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고리 2호기의 폐쇄를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 원래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2년 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1년이나 그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이 시작된 이후 총 29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로 정지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3일에는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화재가 발생해 자동 정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핵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고리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약 85%가 포화되었고 2031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전국 24기의 핵발전소에서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책도 없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 내에 저장하여 핵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이곳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조차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 핵발전소 최대밀집지역인 부·울·경 지역 뿐만 아니라 영광, 울진과 같은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위험하게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타 지역, 특히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초고압송전탑이 또 마을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이제는 핵발전소 지역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싸워나가야 한다. 게다가 태풍과 홍수,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은 핵발전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생산의 구조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40년동안 가동되어 온 낡은 핵발전소를 고쳐 쓰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 5년전 오늘처럼 내년 4월 8일은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추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고리 2호기 폐쇄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 고리2호기 폐쇄를 결정하라!
 - 핵진흥정책 즉각 폐기하라!
 -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약속하라!

2022년 6월 18일

고리2호기 폐쇄촉구부산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일반핵평화연대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전국탈핵집회 발언 김정환(부산YWCA사무총장)

전국 곳곳에서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모인 여러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연대의 정을 나누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부산-울산-경상도 지역의 시민과 부울경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 삶을 저당잡는 생각 없는 기성세대가 되기 싫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지난 6월3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일 오후 6시 5분께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 발전소 내부 차단기가 불에 타 부서지는 상황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리2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뒤 재가동을 시작해 100% 출력에 도달한 지 사흘 만에 원자로가 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일주일여 뒤에 일입니다.

우리는 체르노빌의 36년 후쿠시마 사고의 1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도시로 전락해 있는 그 지역의 고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고리원전 2호기로부터 3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너무도 가까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민들은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이야기하고 2030년까지 폐쇄예정이었던 노후 핵발전소 10기를 계속 운전하려고 합니다.

수명연장은 현 정부와 부산시장의 말처럼 결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7.5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도 여러차례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와 잦은 사고 앞에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원자력 안전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야 합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폐지하는 것은 탄소중립 시대 전 지구적으로 함께 가야 할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핵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부울경 시민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하고, 고리2호기수명연장에 따른 문제와 잘못된 정보, 핵발전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핵 없는 도시 탈핵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민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를 위해 다시 행동합니다. 전국에 핵없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한 기도문

정의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곳 부산에 주님의 정의가 깃들기를 바라며 모였습니다. 쓰리마일을 보았고, 체르노빌을 보았고, 후쿠시마를 보았음에도, 성장과 번영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짓밟아 왔습니다. 상시적 피폭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은 핵발전소가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평화의 주님,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상식과 공정을 말하면서도,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수명을 다한 고리2호기의 운영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곳 부산에 당신의 평화는 대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주님,
우리는 여기 부산뿐 아니라, 경주와 영광과 울산과 울진에 있는 25기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핵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제성장과 탐욕의 추구를 그쳐 지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핵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고난의 현장에 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 - 지역 여성 커뮤니티

|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주)로컬프렌드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드리(Local Friendly)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과 우리술 보틀샵 '술 읽는 상점'을 운영하며 외지인이 군산을 여행처럼 살길 바라고, 지역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군산이 되길 꿈꾸며 커뮤니티를 기획한다. 2022년에는 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역과 청년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고민의 여정이 글을 통해 연재된다.

인구소멸위험지수의 주요 변수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제조업 쇠퇴지역인 군산시 또한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역의 기준은 인구소멸위험지수 계산법을 따르는데,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결과값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 근거로 활용하는데 인구 소멸의 판단 기준이 가입기 여성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인구 문제를 다시 여성의 출산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즉,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입기(15~49세) 여성 수를 바탕으로 만든 '출산 지도'와 유사하게 가입 여성을 주요 변수로 보는 계산 방식이 인구 문제의 원인을 출산으로 단순화 한다는 것이다. '출산 지도'는 삭제됐지만, 소멸위험지수 계산법은 여전하다.

지역 탈출을 꿈꾼다

청년문제를 다룰때 흔히 수도권 중심의 청년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정치에서 드러나

지 않는 지역의 문제, '지역청년'만의 문제를 잘 살펴 봐야 한다. 지역청년문제를 다룰 때 역시 '청년 남성'의 경험과 문제가 주로 다루지는 상황 안에서 '지역청년'으로 일원화되어 가려진 지역 '여성청년'의 문제를 특히나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소도시 곳곳에서 인구소멸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자리 해결방안들이 쏟아진다. 지난호 월간에서 다뤘듯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지역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의 다양성과 기회는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지역을 떠난다. 이에 지역은 기업유치 혹은 공장가동에 대한 플랜카드를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유치와 공장재가동으로 지역에 생산직·제조업 일자리가 넘친다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라 직무를 나누고 임금을 준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생계보조자라는 견고한 시각이 지역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역시 한정적이다. 그나마 고용의 질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사무직은 경쟁이 치열하다. 탈락한 이들은 기약 없는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소득 없는 예비 노동력이 돼 노동시장의 외부 경계를 떠

1) 일본의 관료이자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이 소개한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이 계산법에 따라 소멸 저위험, 위험, 고위험으로 지역이 분류된다. 지수가 1 이하일 때,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이 지수는 발표 이후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일깨우며 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연구 보고서에 활용됐고, 2017년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1. 첫 번째는 여자들 포스터 2. 첫 번째는 여자들 3. 첫 번째는 여자들 4. 첫 번째는 여자들 5. 이슬아직가와 지역여성들의 만남. 동네살롱



돌거나 일자리를 찾아 '지역 엑소더스(탈출)'를 꿈꾼다. 여성 청년에게 지역은 공무원 아니면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서비스직이나 사무보조직뿐인 곳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원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 여성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 지역을 떠나는 것이 해당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는 여자들

'일자리'라는 단편적인 문제만을 언급했지만, 여성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지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보다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에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성청년들이 존재한다. 2019년 군산에 정착해 로컬프렌드리로서 지역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운영함과 동시에, 군산에 정착해 사는 한명의 여성청년으로서 지역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민을

함께 할 지역여성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집시가 깨진다'는 속담을 전한하여, 그 집시를 여성들이 깨보자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여자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집시처럼 깨버린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군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여성청년들을 만났다. 이것을 시작으로 '의식주'와 '라이프 커뮤니티'를 테마로 지역 여성들을 모아 또 다른 지역 여성들을 만나도록 했다. 함께 술을 빚고, 요가를 하고, 영화를 함께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가볍지만 단단하고 즐겁게 우리는 연결되어 갔다.

여담(女談)이 여담(餘談)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본 줄거리와 관계 없는 흥미로운 다른 이야기를 '여담(餘談)'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줄거리보다 이

2)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후원을 받아 한국YWCA연합회와 군산지역 여성기업인 주식회사 로컬프렌드리와 '우만 컴퍼니'가 함께했다. 우만 컴퍼니는 군산 페미니즘 문화 기획팀으로 페미니즘 독서모임, 페미니즘 영화 상영회, 지역X페미니즘 월간 메일링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이다.

[2002년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성명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년,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 이제는 끝내자!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군산 개복동에 위치한 '아방궁'과 '대가'라는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다. 15분 만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2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되었음에도 건물 안에 있던 15명은 모두 사망했다. 영업을 마친 여성 14명, 업소 감시인 이자 관리자였던 남성 1명이 잠을 자다 참사를 당했으며 모두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철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밤늦도록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취중이라도 비상탈출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이 자주 바뀌니 바뀔 때마다 해야 한다.” 화재참사 당일 전북도지사가 한 말이다. 화재참사의 원인과 결과의 책임을 희생된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 브리핑이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번 사건은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돌려대기 급급했다.

그러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외부에서 잠긴 1층 출입문,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특수제작 된 2층 계단 출입문, 외부에서 보이기엔 창문이었지만 내부에서는 창문이 없도록 막아둔 베니어합판이었다. 여성들은 개인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1층에서 합숙 생활에서 하며 목욕탕과 슈퍼도 관리자와 동행해야 했다. 사실상의 감금과 일상적인 착취에 대한 진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여성의 일기장이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화가 난다. 사는 보람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비둘기야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언젠가 네가 나한테 이야기했었지. 나갈 수 있냐고. 난 도무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 입장이 난처했지.”

무참히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들의 일기장은 마침내 참혹했던 성매매업소에서의 감금과 착취를 세상에 알렸다. 그 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성매매 문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하면서 국가에 그 책임을 물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성착취문제를 폭력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성매매 문제의 착취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해자와 공모자 및 알선범죄 행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되어왔던 성매매 집결지는 하나 둘 폐쇄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착취는 더욱 교묘해지고 혐오와 비난의 칼끝은 여전히 여성을 겨누고 있다. 성매매의 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소위 ‘자발적’ 성매매여성 처벌함으로써 반쪽짜리 법이 되어버렸다. 성착취의 원인과 결과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 돌리는 동안에 가해자와 공모자들은 그 뒤에 숨어 이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년, 우리는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과 희생자를 기억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성착취 현장을 내버려둘 때,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또다시 피해여성들임을 똑똑히 기억한다. 성매매/성산업 착취구조의 해체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다. 이를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이들을 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인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기억한다. 성매매/성산업 착취구조 해체하자!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춰라! 성매매여성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성매매와 성착취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억한다.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 이제는 끝내자!

2022. 1. 28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외*



⑥ 여성양조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시음회

흥미로운 여담을 더 오래 기억한다. 로컬프렌들리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온 지역 여성 커뮤니티의 모임들을 여담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제, 청년의 문제, 지역여성청년의 문제는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일상과 이야기를 지역에서 이어나가려 하는 여성들이 모이고, 유쾌함을 나누는 것이 지역 여성 운동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2박 3일간의 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창업가들과 지역여성들의 만남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 로컬프렌들리는 앞으로 여성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야기(談)가 오고 갈 수 있는 세이프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여성들의 여담(餘談)을 모을 것이다.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2000년 9월19일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쉬파리골목'의 3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다. 불은 30분 만에 진

압됐지만 불법 개조된 2층 쪽방에서 감금 상태로 잠을 자던 성매매 피해자 20대 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있고, 커튼으로 실내는 밀폐됐다. 업소의 문은 바깥에서 걸어 잠가 출입을 통제했으므로, 화재에도 여성들은 밖으로 제때 대피할 수 없었다. 1년 6개월 뒤인 2002년 1월 29일 쉬파리골목서 도보 20분 거리인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아방궁'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정오에 났고, 24분만에 진압됐지만 14명의 여성들은 출입구 앞 계단에 뒤엉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화재 현장의 창문은 모두 두꺼운 판자로 막혀 있었고, 환기시설도 없었으며, 출입구는 바깥에서 잠겨있었다. 쉬파리골목 반경 100m 거리에는 파출소가 있었다. 이러한 두 참사를 통해 성매매 업계의 실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최초로 인정됐고, 이를 계기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

군산시는 2010년 개복동 화재 현장의 터 172㎡와 건물 2동을 매입했고, 노후화 등의 이유를 들어 2013년 건물을 철거했다. 여성인권을 교육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소리가 모였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곳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냐는 주민들의 반발과 소극적인 군산시의 태도로 이곳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채 잔디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그렇게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가 2022년 올해로 20주기를 맞이했다. 한국YWCA는 당시 안타까운 사건을 회고하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억의 공간'을 주제로 공간을 열 계획이다. 이 '기억의 공간'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알리는 작품을 전시하고, 성매매와 성착취 반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광주여성전화 부설 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인권 돌음, 인권희망 강강술래,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라교육플랫폼 효재, 전라정치연구소 여성연, 제주여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지난 5월 10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여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새 정부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마침 5월 21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동시에 북한은 2년 3개월 이상 철저한 국경 봉쇄를 통해 유입을 막으려 노력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부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하여 외교, 안보 영역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바라며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제대로 가능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를 공개한 만큼 한국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방역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되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적 위기가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긴급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모니터링을 강조하거나 이른바 '원칙이 있는 접근'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진단키트, 치료제 등을 빠른 시일 내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결을, 이를 위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채택한 헌법적 의무인 평화적 통일의 파트너이자, 특별히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과 공생의 동반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할 때야만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7.4 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이상 2018년) 등 지난 50년 동안 남북 사이에 채택된 합의나 정상들의 공동 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의 선비핵화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이미 실패로 드러난 '선 북한 비핵화, 후 남북관계 정상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전쟁 종식, 그리고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네째,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은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취약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한다. 전쟁은 마지막 선택의 수단이나 가능성으로도 고려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절멸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남북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이뤄온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되면서 남한

에도 핵무기 개발이나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지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확장 억지가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은 냉전 시대 동서의 핵군비 경쟁의 경험이 보여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 증가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외교, 대화와 협상을 선택하는 정부를 원한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는 고조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면서, 자유와 인권 가치의 외교를 시사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충돌되는 동아시아, 특별히 중간에 낀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의 인도-태평양 전략,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을 표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선택은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유지해 온 균형 외교를 이어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계승하고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도주의적 지원 외 정치·군사적 개입이나 미군을 통한 무기 지원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질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나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미군을 통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전쟁에 연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외교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귀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윤석열 정부는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전통적 평화와 안보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일상의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갈 정치적 주제로 참여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부처만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하는 기존의 관행은 과감히 배제하고 시민들의 참여, 특별히 전쟁을 비롯한 무력 분쟁에서 가장 큰 피해와 희생을 겪어 온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여성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통일·외교·안보 영역의 성주류화와 여성들의 평화역량 강화, 평화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바라건대, 모두의 남과 북,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기와 군비, 적대정책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간안보를 보장할 평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19일 여성평화단체와 개인들 (가나다순)

가치교육연구소, 거래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성민회, 지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여성회, 노들담수여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사단법인녹색평화연합, (사)대구여성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민예총,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겨레하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심자매회,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여성회, 수원여성회, 아카데미할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JPIC, 예수성심시녀회,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젠더교육플랫폼존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전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간사회젠더정의분과, 한국YMCA전국연맹, 6.15남측위국제연대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분부, 6.15전남본부평화통일교육센터,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5월 21일) 개최됩니다.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큼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냉각전으로 빠져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경쟁적인 신형 무기 개발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공급망 위기, 핵과 무기 증강까지 동반하는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는가 하면, 실질적 구상도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가 합의해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주적', '선(先) 비핵화' 등 대결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는 적대정책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앞세움으로써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평화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패권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 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사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며, 냉전의 마지막 열성 한반도에서부터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단체 (총 146개)



5월 월례기도회



5월 월례아침기도회가 5월 21일(월) 오전 9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연합회 전 실행위원인 김신에 목사가 에베소서 2장 19-22절 말씀으로 '모퉁잇돌'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한국YWCA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설교하였다. 그리고 한국YWCA가 선포한 비전문에 담긴 대로, 창립 초기의 청년성을 회복하고, 편견과 차별을 깨고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후위기 시대와 전쟁 속에 생명살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 함께 기도했다.

YWCA 제2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재생에너지 ≠ 성평등

- 전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여성 32%,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의 비중 22%)
- 2018년 서울에너지공사 중위급 성별임금격차 40.99,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두번째
- 여성노동자 비율 16%
- 제주에너지공사 성비

기후위기와 젠더 불평등

- 1. 10년 대우역사의 성별 격차
- 2. 4국연계 재생에너지 연구소 (Changwon & Filmmakers, 2021) 2011-2021년 10년간 재생에너지 분야 여성 고용률
- 3. 2021년 4국 대우역사의 성별 격차
- 4.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
- 5.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
- 6.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
- 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
- 8.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

5월 4일(수) 제2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기후위기와 여성이 열렸다. 이은영 RE100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콜로키움은 원영희 회장의 여는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김은경 이사를 비롯하여 38개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자 총 79명이 참석하였다. 콜로키움 1부는 에코페미니즘 연구소 '달과 나무' 이윤숙 부소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 연구원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윤숙 부소장의 강의, '기후재난과 여성의 삶'에서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여성들의 상황과 재난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정은아 연구원의 강의 '에너지전환과 여성일자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탈핵 및 탈석탄 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상황에서 적극적인 여성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권역별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성평등과 기후위기를 이어 만들어낼 수 있는 Y운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2022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의 모든 강의들은 Y-아카데미(<http://ywc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쪽)

2022 YWCA 청년이사교육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이사 교육이 5월 5일(목)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YWCA연합회 재구조화 이후 첫 출범한 법인이사회에서 청년이사들이 본인의 역할을 알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YWCA의 목적과 회원YWCA와의 관계, 정책, 정관 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 YWCA목적문의 신학적 배경과 YWCA 정체성 논쟁의 역사, 100년을 위한 YWCA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며 법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연합회와 회원YWCA의 상호관계를 이해했다. 그 이후에는 YWCA 정책 이해 강의로, YWCA의 재구조화의 배경과 현주소, 과제에 대해 알고, 2022-2023 YWCA운동정책과 운영정책을 이해했다. 그 밖의 한국YWCA의 정관과 규정을 공부하고, 회원YWCA 가입 및 운영내규와 회원YWCA 관련 규정을 살펴 보았다. 끝으로 청년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은지 (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한국YWCA가 나아갈 길에 대해 끝없이 고민할 것을 다짐했다. 서다미 이사는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년세대의 전반적인 시각을 담아 한국YWCA의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논의와 선택을 이어나갈 것을 이야기했다. 2022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이사들은 한국YWCA의 운영과 운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청년이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윤석열대통령 취임식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 5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단체들은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조금 앞선 10시 45분 경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이는 장소에서 기자회견의 일부로 퍼포먼스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구조적 성차별 외면 말라",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하라", "여가부 폐지 발언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참석자들은 함께 '헌법 제 1조를 노래하며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했다.

6.1 지방선거 'YWCA와 함께보는 주요 정당정책' 공개



한국YWCA연합회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 및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한 'YWCA와 함께 보는 주요 정당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YWCA가 제안한 성평등, 청년, 탈핵·기후, 평화·통일 4개 부문에 대한 주요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정책과 함께 YWCA의 평가를 알렸으며, 특별히 오프라인 뿐 아니라 연합회 및 회원YWCA의 각종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렸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당들을 태그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평등 부문에서 YWCA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와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 정책 도입, 그리고 성평등

교육 정책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청년부문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제도 및 청년 고용지원계획 확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탈핵기후생명 부문에서는 탈핵정책과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정책,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그리고 방사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안전대책에 대해 요구했으며, 평화통일 부문에서는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참여 촉진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교육 확산을 요구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 8만 회원과 함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운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상반기 워크숍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상반기 워크숍이 2022년 5월 19일(목)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은 2019년 5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2022년에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소속 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 경제교육 발전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후 분임토의에서는 현재 각 기관별로 진행 중인 취약계층 대상별 경제교육의 사례를 나누고, 현재 취약계층 대상별 경제교육의 한계점 및 극복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경제교육을 서로 공유하며,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5.24 평화군축 세계여성의날 기자회견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9일

(목)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군비, 적대정책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간안보를 보장할 평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호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발언을 맡은 연합회 최수산나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평화 한반도 과제를 제거하고는 불가능하며, 남북 협력의 경험과 성과들을 폐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하는 군사 동맹과 협력을 폐기할 것을 피력하였다.(기자회견문은 44쪽)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를 맞아 5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보신각 앞(서울시 종로구 종로54)에서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를 주제로 여성주의 연합예배가 열렸다. 총 18단위의 공동주최를 통해 열린 이 예배에는 한국YWCA연합회와 (사)서울YWCA가 함께 참여했다. 예배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로 향린교회의 백찬양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예배 중에는 붉은 천을 흔들며 합성을 지르는 분노의 파도 만들기와 승리의 파도 만들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는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칠 때, 주님께서 함께 외쳐 주실 줄 믿는다. 그리하여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바꿔 내고 끝내 성평등한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기도했다.

2022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

2022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이 5월 26일(목) 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사무총장(대구, 목포, 부천, 서울, 서천, 안양, 원주, 의정부, 익산) 총 9명이 참여한 가운데 <YWCA 목적과 정체성>(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의



YWCA>(백소영 강남대 교수, 연합회 이사), <지역운동강화를 위한 지역분석기초 이해>(박동순 연합회 국장) 강의를 진행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임있는 활동가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신임사무총장교육>은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와 사무총장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매년 YWCA 기초교육으로 개최된다.

청년 글로컬 네트워크두번째 사람책방



강남순 작가와 '질문 빈곤을 넘어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토)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컬 네트워크 두 번째 사람책방 강남순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질문 빈곤을 넘어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이 진행되었다. 작년 13월, 김초엽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첫 번째 사람책방에 이어 두 번째 사람책방의 주인공으로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원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로 재직 중인 강남순 작가를 초청하였다.

김예지, 이예림 대학청년YWCA 회원이 사회자를 맡아 강남순 작가와 만남 '질문 빈곤을 넘어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 라는 주제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 청년으로서의 성찰' '2. 여성으로서의 성찰' '3. 종교인으로서의 성찰'로 파트를 나누어 강남순 작가와의 심도 깊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 세

계 다양한 여성리더십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국 YWCA 100주년 기념사업 :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사람책방은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28쪽)

YWCA 제3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남북 기후 협력

■ 한반도의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세들 산한 시기도 100년 전보다 한 달 빨라져
기후변화로 봄 시국이 빨리져 꽃도 일찍 피고 동면동물도 겨울잠을 일찍 깨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들도 울지를 일찍 듣고 알을 낳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까지 날아온 푸른 날개달매도

맑은 추위에 결빙없이 겨울 날긴 한강...1906년 이래 9번째
가장 최근 결빙이 없었던 2019년 겨울은 평균 최고 기온이 6.1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평균 기온(1.8도), 평균 최저기온(-1.5도)도 역대 2위로 기록됐다. 이번 겨울과 달리 유달리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얼음을 보기 어려웠다.

수동, 민선 등 일부 지역 47%인식 권력

북한 폭염 열대야 높고 한파 줄었다... 기후변화로 온도 0.4도 상승

2021.11.30

홍영민보, 2022.03.15

6월 8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제3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가> 이은영 RE100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본 콜로키움에는 조은영 부회장, 김은경 이사를 비롯하여 37개 회원YWCA 및 연합회 실무자를 포함, 총 68명이 참석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의 강의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로 시작된 본 콜로키움에서는 남북 기후협력 상황 및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그리고 국제적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기후위기의 국제적 정책들이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YWCA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조에서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및 지원을 위해 YWCA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다음 콜로키움은 10월과 11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2022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의 모든 강의들은 Y-아카데미(http://ywc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YWCA지역회의

6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2022 아시아YWCA 지역회의가 WPS(여성·평화·안보)를 주제로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총 11개국으로 한국, 홍콩, 일본,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싱가포르, 태국, 대만, 필리핀, 인도에서 모였으며 총 50여 명이 참여



하였다. 기초발제로는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WPS를 주제로 서문을 열었다. 이어서 각 국에서의 국가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YWCA의 국가 발표는 연합회 조은영 부회장이 담당하여 지난 2년간 진행되었던 사업과 연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홍콩YWCA에서는 청년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I-watching 운동과 사이버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에 대하여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일본YWCA는 한국YWCA와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 공동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행동계획을 세워보는 청년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미얀마YWCA에서 군부 독재 이후 여성들의 경제를 위한 교육, 소녀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끝으로는 에큐메니칼 예전을 따라 담은 기도로 아시아YWCA 지역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참고)

'홍청망청-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공모전 최종 선정작 발표

모듬튀김 튀김가루 모집
모듬튀김에서 함께 할 배우와 스태프를 찾습니다

모집기간 16월13일 - 7월15일
모집대상 18세 - 19세
신청 및 문의 1010.5728.2736
주최 주관 1모듬튀김 후원 1YWCA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5월 27일 '홍청망청-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공모전 최종 선정작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YWCA연합회가 100주년을 맞이해 사회에 만연해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직접 YWCA 100주년 비전문에 담긴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도를 하도록 기획됐으며, 청년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 심사위원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총 51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총 13팀이 선정되었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채소로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는 '오케스트라', 청년의 마음을 담은 연극인 '복두칠성', 천 생리대와 여성청소년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save me, save us'팀, 서산의 청년 문제를 연극으로 풀어낸 '서서이', 지역 여성의 멘토링 프로젝트인 '잔치: 여담', 지역 교회의 리필스테이션을 설립할 'Refill church', 지역 독립서점의 디지털화를 이끌어낼 '무형서재'팀, 학교폭력에 관한 영화와 연극을 제작할 꿈나무 '모듬튀김',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연극 '보노보 프로젝트', 지역 청년 예술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아뜰리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제작한 '킨트',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젝트 '늘봄', 농어촌 탄소중립프로젝트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시도하는 '요샌 뭐하니?' 프로젝트이다. 자세한 선정작 내용 확인은 한국YWCA연합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6월 월례기도회



6월 월례아침기도회가 6월 2일(목) 오전 9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연합회 전 위원인 강남순 교수가 마태복음 25장 31절-46절 말씀으로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WWJD): 함께-살아감의 과제'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새로운 YWCA의 100년을 여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감의 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며, 한국YWCA가 이 땅에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정의, 평화, 생명의 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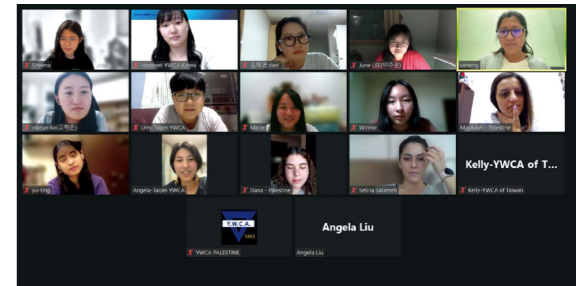
강남순 교수 초청, 강연과 대화

6월 2일(목) 연합회 명예연립위원, 현 이사, 전 위원, 연합회 실무활동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강남순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강연제목은 '나/우리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금의 YWCA와 도래할 YWCA 사이에서'였다. 강

남순 교수가 최근 발간한 [질문빈곤사회]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왜?'라는 물음표를 허용하여야 하며 100년을 이어온 YWCA가 지금까지의 업적과 전통에 안주하지 말고 차별과 배제, 폭력과 고통을 주는 사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YWCA 여성청년 교류 프로그램 'Through Your Eyes'



지난 6월 10일 첫 번째 YWCA 여성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여성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YWCA, 팔레스타인YWCA, 대만YWCA(타이페이YWCA) 세 기관이 연대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기관별로 3-5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자기 다른 주제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서다미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회장, 서울YWCA 고하은, 김혜연 청년과 이주는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서 나눌 주제는 다양하게 진행되는 데, 각 국가에 대한 생각, 미의 기준, 전통과 문화, 소셜 미디어 등 현재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역할을 미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맥락의 차이 안에서 청년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전 세계YWCA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감에, 글로벌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홍청망청 쇼케이스 개최

지난 6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홍청망청-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쇼케이스가 온라인 줌으로 개최되었다. 원영희 회장, 조은영 홍청망청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후원과 지원을 하는 YWCA 관계자와 멘토, 2022년도 홍청

망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3개 팀의 팀장과 팀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목표와 계획 그리고 결과물 등을 열정적으로 소개하였다.



총 51개의 신청작 중에서 23개를 대면 심사하였고, 그중 13개 팀을 선정하였는데, 흥청망청 프로젝트 중 '오케스트라' 팀은 채소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채소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킨트', 대전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한 '늘봄'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이다.

'복두칠성', '서서이', '보노보 프로젝트', '모듬튀김' 등은 주제는 청년들의 삶, 서산지역 청소년들의 이야기, 지속가능한 환경, 학교폭력 등으로 각각 주제는 다르지만, 연극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역 청소년, 청년들이 직접 배우나 스태프로 참여하는 참여형 연극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 청소년, 청년 여성들에 관한 프로젝트 'save me, save us', '잔치: 여담'과 지역 교회의 제로웨이스트 스테이션을 설립할 'Refill church', 지역 독립서점의 디지털화를 이끌어낼 '무형서재', 지역 청년 예술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아뜰리에', 농어촌 탄소중립프로젝트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시도하는 '오션 뒤편하니?' 프로젝트 등 YWCA비전문에 담긴 가치를 녹여내고 지역, 여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프로젝트를 11월까지 청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흥청망청 프로젝트의 활동 과정은 YWCA블로그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6월 15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사노동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6월 16일,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함과 동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마련된 시행령에 관한 우려점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에서 주최하였으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가 사회를 담당했다. 발언은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을 시작으로 송미령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과 서울YWCA 최은자 돌봄회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는 가사법 안착과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가사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퍼포먼스를 통해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자세한 내용은 34쪽)

6.18 전국탈핵행동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과 고리 2호기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동이 주관하는 6.18전국탈핵행동이 6월 18(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탈핵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탈핵활동가들은 고리 2호기 폐쇄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위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농성장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5년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것처럼 고리 2호기 역시 수명연장 없이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당일 현장에는 부산YWCA를 비롯하여 광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탈핵 및 기후활동가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끝낸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은 광복로까지 행진하며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시킨 부산시민들에게 다시한번 위험한 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7쪽)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2021~2022.6.20까지/약정포함/단위 : 원)

1. 100주년사업 후원

후원종류	구분	금액	후원종류	구분	금액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	개인	141,530,000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개인	52,940,000
	회원YWCA	16,350,000		회원YWCA	17,200,000
	기업/단체	14,232,000		기업/단체	32,000,000
	소계	172,012,000		소계	102,140,000
		총 계	332,257,500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비고	성명	금액	비고
강교자 후원회 이사장	3,000,000		연합회회장단 (원영희 조은영 이은영)	10,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2,000,000		오영란 연합회 전 실행위원	1,000,000	
권오형 연합회 회계감사	1,000,000		오초녀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권혜영 새문안교회 권사	1,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김말숙 인천YWCA 증경회장	100,000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00,000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30,000,000	화보집 제작	이봉진, 故 고의순 연합회 위원	1,000,000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100,000		이순희 안동YWCA 회장	100,000	
김미애 연합회 팀장	100,000		이옥식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병찬/김정임 연합회 간사	2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3,000,000	
김성자 제천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임 연합회 전 실행위원	1,000,000	
김성희 에듀윌 대표	100,000		이행자 명예연합위원	3,000,000	
김수연 연합회 팀장	100,000		이혜련 연합회 부장	100,000	
김숙희 100주년 공동위원장	3,000,000		임진영 연합회 부장	100,000	
김순영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장원자 전 수원YWCA 관장	100,000	
김연자 순천YWCA 증경회장	500,000		장혜선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김은경 연합회이사	1,000,000		장혜숙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은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850,000		주선에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100,000		전배자 강릉YWCA 증경회장	100,000	
김재신 연합회 감사	1,000,000		전화성 후원회 이사	1,000,000	약정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1,000,000		정동신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주원 여성소비자연맹 사무처장	50,000		정서연 연합회 팀장	100,000	
김진용 차의과학대 교수 연합회 자문위원	300,000		정이숙 목포 Y 증경회장	1,000,000	
김태년 천안YWCA 증경회장	500,000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50,000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200,000		정진아 의정부YWCA 사무총장	100,000	
김 형 명예연합위원	3,000,000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무국장	50,000	
김형남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		최정숙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노인자 인천YWCA 회장	100,000		최지영 연합회 팀장	50,000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	200,000		최만자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약정
문상순 울산YWCA 증경회장	1,000,000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500,000	
박중희 의정부YWCA 증경회장	1,000,000		최형선 연합회 전 임원	200,000	
박호권 한국YMCA연맹 국장	100,000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	1,000,000	
배윤례 하남YWCA 증경회장	100,000		하선규 부산 Y 증경회장	1,000,000	
백수미 속초YWCA 사무총장	50,000		하행여 남양주YWCA 증경회장	100,000	
이현순 부천YWCA 사무총장	50,000		함종민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송기영 법인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3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신인숙 연합회 전 부장	200,000		홍수진 연합회 팀장	100,000	
신정원 하남YWCA 사무총장	100,000		홍인숙, 故 서희전	20,000,000	
신현채 수원YWCA 증경회장	300,000		황혜숙 연합회 전 임원	10,000,000	
안재용 YMCA유지재단이사장	300,000		양서영, 이예린, 이은정	50,000	
		소계 (80명)	141,530,000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강릉YWCA	100,000	광명YWCA	50,000	군산YWCA	300,000	남원YWCA	1,000,000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거제YWCA	300,000	서천YWCA	300,000	익산YWCA	300,000	하남YWCA	300,000
고양YWCA	100,000	서천YWCA	100,000	제천YWCA	100,000	YWCA	5,000,000
광양YWCA	100,000	성남YWCA	100,000	진해YWCA	100,000	전국증경회장단모임	
(사) 광주YWCA	1,000,000	속초YWCA	1,000,000	창원YWCA	1,000,000	2021	
김해YWCA	100,000	안동YWCA	100,000	천안YWCA	100,000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
남양주YWCA	100,000	안산YWCA	100,000	춘천YWCA	100,000	2022	
동해YWCA	500,000	안양YWCA	500,000	충주YWCA	500,000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0
마산YWCA	100,000	양산YWCA	100,000	통영YWCA	100,000	2022	
부산YWCA	1,000,000	(사)울산YWCA	1,000,000	파주YWCA	1,000,000	경상권역 사무총장협의회	500,000
부천YWCA	500,000	원주YWCA	500,000	평택YWCA	500,000	포항YWCA	1,000,000
(사)서울YWCA	1,000,000	의정부YWCA	1,000,000				
				소계 (42곳) 16,35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비고	단체명	금액	비고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5,000,000	약정	한국YWCA전국연맹	1,000,000	
국무총리실	1,000,000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100,00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1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민문정)	200,000	
대한어머니회중앙회(박에스디)	100,000		홍사단(박만규)	500,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100,000		대상(주)	3,300,000	
소비자교육중앙회(주경순)	200,000		서울우유	1,000,000	
소비자시민모임(문미란)	500,000		한솔사무기기	100,000	
여성평화의외교포럼	100,000		의류바자회수입	932,000	
소계(14곳)			14,132,000		

2. 세상을 만드는 100개의 프로젝트

1) 개인 후원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강난파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1,000,000	유태규/김경천 광주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1,0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김경희 수원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유림 서울YWCA 회장	1,000,000
김덕순 울산YWCA 회장	1,0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김순영 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1,000,000	이재홍/박동순 연합회 국장	1,000,000
김애자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정수 소현 사무총장	100,000
김영희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3,000,000	이중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2,000,000
김은숙 목포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이종임 연합회 공천위원	1,000,000
김주현 전 파이낸셜뉴스 사장	2,000,000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2,000,000
나은실 전 후원회 이사	1,000,000	이주영 연합회 부장	1,000,000
명진숙 은학의집 관장	1,000,000	이혜경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문영희 전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희정 연합회 팀장	100,000
박경미 이화여대교수	300,000	임국미 대전YWCA 증경회장	1,000,000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 증경회장단모임 회장	1,000,000	정 속 안양YWCA 증경회장	100,000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정혜순 김필레기념사업회장	1,000,000
박용옥 사)3.1 여성동지회 회장	500,000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박윤애 연합회 이사	1,000,000	조은지 연합회 청년부회장	50,000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차경애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000,000
백소영 연합회 이사	1,000,000	최현자 청주Y 증경회장	1,000,000
서다미 대학 청년YWCA협의회회장	50,000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1,000,000
신현주 청주YWCA 전 관장	100,000	한영수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연합회 국장(박동순, 박은실, 배정미, 송록희, 최수산나)	1,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연합회 부장(안정희, 이주영, 이해련, 임진영, 홍현정)	1,000,000	홍인숙 전 퀸즈YWCA 총무	1,000,000
오경애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원영희 연합회 회장	1,000,000	박은정 신록회 신장아유세영이메탄! 유예람 유육진 유정현 최경선 황미선	140,000
유도희 여수YWCA 증경회장	1,000,000		
소계 (70명)		52,940,000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논산YWCA	100,000	(사)세종YWCA	1,200,000	(사)전주YWCA	1,000,000	사)청주YWCA	1,000,000
(사)대구YWCA	1,000,000	(사)수원YWCA	1,000,000	(사)제주YWCA	1,000,000	은학의집	1,000,000
(사)대전YWCA	1,500,000	(사)순천YWCA	1,000,000	진주YWCA	1,000,000	2019 5부지역위원장	1,000,000
사)목포YWCA	1,000,000	(사)여수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0		
사)서귀포YWCA	1,000,000	(사)인천YWCA	400,000	창원YWCA	1,000,000	소계 (18곳)	17,20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한국부인회총본부(남인숙)	100,000	(주)농심	1,000,000	사회혁신기업 더함	1,000,000
한국소비자교육원	100,000	농협 명동지점	200,000	삼성전자	1,000,000
CJ제일제당	1,000,000	네이버	3,000,000	(주)아모레퍼시픽	2,000,000
(주)NS홈쇼핑	5,000,000	대한기독교서회	1,000,000	한국아쿠르트	1,000,000
(주)SPC	1,000,000	동서식품(주)	1,000,000	홀플러스(주)	5,000,000
(주)오뚜기	1,100,000	롯데제과(주)	1,000,000	(사)기업소비자협회(OCAP)	1,000,000
럭스나인(주)	5,000,000	매일유업(주)	500,000	소계 (19곳)	32,000,000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한국YWCA 모금

(2022. 2. 1 ~ 6. 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강병일, 강하자, 강희경, 고문희, 고복순, 구정혜, 권정자, 김동경, 김미애, 김미자, 김선희, 김성희, 김수연, 김애자, 김은희, 김은영, 김자영, 김혜경, 김혜진, 남궁혜경, 민경미, 민진옥, 박경진, 박금자, 박미라, 박소진, 박희경, 배정미, 배유미, 서정희, 성지영, 손희연, 신미송, 신인숙, 신옥희, 신정원, 안경자, 안명옥, 안보유화, 엄금자, 엄봉순, 오제진, 옥경진, 우영숙, 원순자, 유선혜, 유순규, 유영주, 유옥진, 유정현, 유혜미, 윤수정, 이강희, 이광실, 이미경, 이보은, 이복경, 이상희, 이송학, 이순길, 이순자, 이순호, 이신애, 이에린, 이은영, 이정숙, 이주영, 이지윤, 이한빛, 이휘영, 이희경, 임영미, 임용진, 임은선, 임현숙, 장현옥, 전민옥, 전배자, 정상숙, 정지선, 정혜진, 조광현, 조봉자, 조은영, 최경선, 최든수, 최수산나, 최우용, 최은숙, 최현정, 한미미, 한은혜, 홍수진, 홍순옥, 홍인숙, 홍현정	4,860,000
회원YWCA 교회 및 단체	고센식품, 군산YWCA, 군산한일교회, 남양주YWCA, 논산YWCA, 늘푸른재가복지센터, 대구YWCA, 대전YWCA, 목포YWCA, 부천YWCA, 서울YWCA(국제협력, 시설운영), 속초YWCA, 순천YWCA,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안양YWCA, 양산YWCA, 연세플러스비뇨기과, 예수비전교회, 의정부YWCA, 이은교회, 전주YWCA, 제주YWCA, 진주YWCA, 진해YWCA, 청주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할렐루야교회, 포항YWCA	22,530,800
합 계		27,390,800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2. 1. 1 ~ 2022. 6. 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 기부	고이나, 구정혜, 김형남, 돌림수렌, 박은실, 김병찬/임정임, 신성균, 배정미, 안정희, 안혜숙, 이숙현, 조은영	1,070,000
합 계		1,07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2. 4. 29 ~ 2022. 6. 25)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CMS 및 입금분)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윤경,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자영, 김영현, 김은경,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척더르즈 돌림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영선, 윤수정, 이민정, 이영미, 이영숙, 이에린,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2,945,000
누 계		10,350,220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이수아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강릉YWCA에서는 5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강릉YWCA 비전홀에서 강릉 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동해YWCA 사무총장님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재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활동을 보고하고 새롭게 영입한 감시단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2022년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대식이 끝난 후 스타벅스 사거리에서 13명의 단원들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YWCA, 동해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및 특강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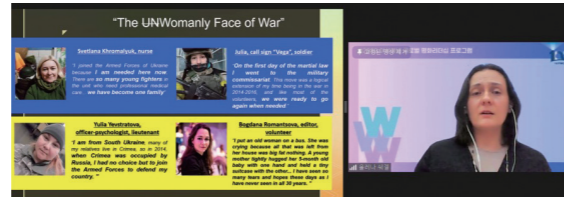
동해YWCA는 4월 21일(목) 오후 2시, 보호·선도를 위한 캠페인, 홍보, 계도캠페인을 펼치는 활동을 위해 동해YWCA3층 대강당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동해시청 가족교육과(과장 임정규)를 비롯하여 담당자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상패전달식, 감시단원 역량 강화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서울Y는 4월 27일(수) 창립 100주년 기념 월간 세미나 '2022 여



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관련 평화 실천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4월에는 '러시아는 왜 전쟁을 일으켰나'에 대해 구정은 국제 전문기자, 5월에는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주제로 올레나 셰겔 교수(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강연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도 활발히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실천방안을 나눴다. 이어서 6·7월에는 기후위기, 9·10월에는 여성의 몸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이 여성청년이 지구시민으로서 연대의 힘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속초YWCA

김다미 간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속초YWCA는 5월 2일(월)부터 5월 20일(금)까지 만 50세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속초YWCA 4층 교육장에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일자리를 잘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15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원주YWCA

양지영 간사

신임이사환영식 및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원주YWCA에서는 4월 21일(목) 오전 10시 원주YWCA 신임이사환영식 및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신임이사 6명에 게 YWCA 뱃지와 꽃다발 전달식을 가져 현이사와 우의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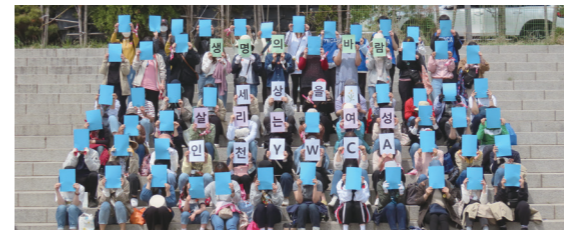


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회원증모운동발대식에서는 이수복 회장이 회원증모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원주YWCA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증모 목표치 설정 및 증모 독려 이벤트를 발표했다. 참석자 모두는 원주YWCA 부흥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인천YWCA

서순아 팀장

인천YWCA 회원의 날 행사



(사)인천YWCA는 4월 23일(토)에 인천YWCA 회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2022년 회원의 날 행사'를 인천시 승기근린공원과 승기천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승기천을 함께 걸으며 하천 일대의 유해식물 제거, EM 흡공 던지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하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단체 미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인천YWCA의 생명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YWCA

송영주 간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 양성교육



춘천YWCA는 4월 11일(월)부터 4월 22일(금) 10일간(80시간)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 양성

교육을 1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우처제도에 대한 이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문제,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양지영 간사

기후위기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사)고양YWCA는 2022년 고양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4월 19일(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지역여성들과 함께 고양시 기후대응정책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모니터링한다. 생명다양성, 습지탐방, 비거니즘, 지방자치와 조례, 고양시 조례 젠더관점분석, 기후위기대응 생활밀착형 조례만들기, 지역에너지전환, 기후위기와 농업, 에코페미니즘과 돌봄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후속 모임으로 기후위기와 채식스터디, 채식조레만들기, 기후위기대응조레 젠더 관점 모니터링, 관련 위원회 성별·세대별·분야별 대표성을 모니터링하며 결과보고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광명YWCA

박문경 총장

광명시장 후보자 정책협약식



광명YWCA는 5월 18일(수) 오전 광명시장 1층에서 '광명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협약식'의 목적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

거가 정책선거가 되는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함이며, 광명 지역 시민사회가 시민과 밀접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후보자에게 물어,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함이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교육



남양주YWCA는 5월 11일(수)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그림책으로 하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교육을 개강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리 잡기 쉬운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 의식을 심어줄 전문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등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는 그림동화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을 하여 어릴 때부터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이루게 한다.

부천YWCA 유예은 간사
부천시민사회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 및 간담회



부천YWCA는 5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부천시 2명의 시장후보(더불어민주당 조용익, 국민의힘 서영석)와 시의원 후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6.1 지방선거 부천시민사회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부천YWCA는 기후위기와 여성분야에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시의원 후보들에게 가사근로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 환영하고 그와 동시에 가사

근로자의 안정된 임금과 고용개선, 지원이 절실히 시점에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서약을 확인하였다.

성남YWCA 김지혜 주임
다정다감 프로젝트2



성남YWCA는 5월 14일(토) 이주여성역량강화사업 '다정다감 프로젝트2'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거주 '한부모이주여성 1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 심리상담 및 자녀 진로검사프로그램과 자녀와의 일일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남YWCA는 이주여성들이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고 자녀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사)수원YWCA 강은진 간사
Y-TEEN 인준식



(사)수원YWCA는 5월 21일(토) 11시 'Y-TEEN 인준식'을 메타버스로 진행했다. 이날 인준식에는 보라고, 수원여고, 유신고, 창현고 총 4개의 학교 Y-TEEN 동아리와 대학청년Y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인준식은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 개회식,

2부 인준식, 3부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사)수원YWCA는 청소년들이 YTEEN 활동을 통해 Y의 목적에 맞는 'Y다운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SDGs에 대해 새롭게 배우면서, 탄소 중립 에너지 교실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수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가사 관리/정리 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



(사)안산YWCA는 4월 11일(월)부터 5월 11일(수)까지, 20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가사 관리/정리 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을 총 30시간 실시했다. 가사 기본관리와 주방, 옷장 등 정리수납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수료하면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복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전문가 양성과정'의 일환이며, 이후에는 산후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돌봄직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미니바자회



(사)안양YWCA는 5월 10일(화) 회관 앞에서 미니바자회를 개최했다. (사)안양YWCA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나바다, 의류, 화장품 등 각종 후원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 낮의 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들, YWCA회원, 유관기관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신임위원·실무자교육



의정부YWCA는 인사 및 지도력양성위원회 주최로 5월 24일(화) 2시부터 6시까지 신임위원, 한울타리 자치회 임원, 신임실무자 총 11명을 대상으로 신임위원·실무자교육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진행된 신임위원·실무자 교육이었지만 교육을 통하여 YWCA를 이해하고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하남YWCA 김유진 간사
'애들이 놀자' 어린이날 행사



하남YWCA에서는 5월 5일(목),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환경오염 NO! 지구 YES!'라는 주제로 '애들이 놀자'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후 함께 폐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봉투에 우산, 벽시계, 담배꽂초 등 생활쓰레기를 주우며 1시간 정도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또한, 동시에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회관 앞에서 EM활성액 만들기과 캘리그래피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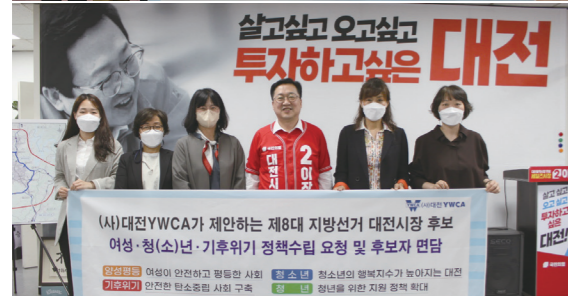
원예치유 플로리스트 활동가 양성과정



(사)논산YWCA는 5월 28일(토) 원예치유활동가 양성 및 돌봄 어르신들의 반려식을 위로 과정으로 10명의 활동가들에게 원예치유 플로리스트 초급 자격과정을 진행했다. 플로리스트 활동가들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독거(돌봄)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 우울감과 외로움을 달래는 반려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제 8대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정책제안



(사)대전YWCA는 제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에게 정책수립 요청 및 후보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5월 10일(화) 17시 국민의 힘 이장우 후보, 5월 16일(월)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사무실에 방문하여 정책 제안을 하였다. YWCA의 중점운동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양성평등, 청소년, 청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하였으며, 2022년 4월 1일(금)부터 29일(금)까지 대전시민 220명에게 기후위기, 양성평등, 청(소)년, 평화통일에 관하여 '대전시민이 대전시장에게 바란다' 정책을 조사하여 내용을 함께 전달하였다. (사)대전YWCA는 두 시장 후보에게 당선된다면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고 두 시장 후보는 최대한 반영하여 힘쓰겠다고

는 답변하였다.

(사)세종YWCA 양유정 간사

회원증모은동 발대식



(사)세종YWCA는 5월 10일(화) 회관 강당 및 주차장에서 회원증모은동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자원·실무활동가 35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YWCA 기도로 시작해서 회원모집 동영상 시청, 공동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동프로그램으로는 소외된 여성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평화통일 기도문 작성, 청소년 후원처 투표 부스, 양말목공예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 후원나눔터 등 다양한 체험부스로 이루어졌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활동가들은 중점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였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지구별도서관 문화교실



제천YWCA 부설 지구별도서관에서는 5월 16일(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 소통 단절에 따른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였다. 다육 정원, 관엽식물 토끼어리, 생화 꽃바구니,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식물들이 주는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지구를 지켜라 나로부터 RE100

천안YWCA는 5월 14일(토)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인 '청춘(靑春):청소년의 봄'에서 '지구를 지켜라 나로부터 RE100'이란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체험과 EM활성액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유용한 미생물 EM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바꾸고 에너지도 민주주의 영역으로 여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 요즘 꼭 필요한 체험이 되었다.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환경선교사 발대식



(사)청주YWCA는 5월 26일(목) 충북·청주시기독교연합회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 교회와 함께 세상을 푸르게' 사역의 일환으로 청주YWCA 강당에서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독교 - 환경선교사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충북·청주시기독교연합회와 기후위기대응활동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아름다운 뜻에 동참하는 청주시내 연합회 소속 20개교회에서 환경선교사를 추천받아 이날 약 30명의 환경선교사를 위촉하고 각 교회로 다시 파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과정

충주YWCA는 2022년 5월 18일(수)부터 27일(금)까지 10일 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충주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과정'은 취업을 원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바우처제도부터 산모와 신생아케어, 산모영양관리, 아



동학대에방교육까지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및 내용을 세분화하여 총 63시간 동안 이론과 실기교육을 했다. 총 23명의 여성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경상권역

거제YWCA 김의향 간사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자 교육



거제YWCA는 5월 10일(화) 본부 및 전 부속시설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였다. YWCA부속시설 재구조화 및 지역법인화, YWCA 목적과 정체성, 실무자로써의 자질과 성장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교육을 통해 YWCA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김해YWCA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김해YWCA는 5월 27일(금) 오후2시 김해YWCA 창립 31주년 및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2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 창립예배, 2부 창립기념식, 3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에는 김해YWCA 역대 회장과 사무총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장을 초청하여 이사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트렁크 비우고, 환경사랑 채우고!



(사)대구YWCA는 5월 21일(토) 오전 11시,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에서 '카부츠 베품시장'을 진행하였다. 자녀동반 가족 60개 팀이 참여하여 의류,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였고, 베품시장 외에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대구YWCA 부속기관에서 체험존을 운영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경제교육과 함께 이웃사랑,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회원과 함께하는 플로깅



마산YWCA는 4월 22일(금) 지구의 날과 5월 31일(화)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회원과 함께하는 '플로깅(Plogging)' 시간을 가졌다. 4월은 가포수변공원 해안가 일대를, 5월은 합포수변공원부터 교방천까지 하천을 따라 쓰레기를 주웠다.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담배꽂초부터 비닐, 플라스틱 등 다양한 생활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직접 보고 느끼며 분리배출, 지정 장소 쓰레기 배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 시간이 되었다.

(사)부산YWCA 장한이 간사

사단법인 부산YWCA 창립총회



(사)부산YWCA는 5월 17일(화) 오전10시 30분, 사단법인 부산YWCA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여는 공연, 개회예배, 인사말, 격려사, 개회선언, 목적제창, 서기지명, 안건심의, 회의록 채택, 광고, 폐회기도, 회가제창,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76년의 역사를 넘어 희망찬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부산YWCA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었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부활란 나눔



사천YWCA는 4월 17일(일) 사천시 부활절 연합예배와 음악회에서 사천시기독교연합회와 동행하는 후원 행사로 부활란 나눔을 진행하였다. 또한 4월 18일(월)과 19일(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 시간 지역에서 수고한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부활란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사천YWCA 활동을 목적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양산YWCA 김유경 간사

양산YWCA,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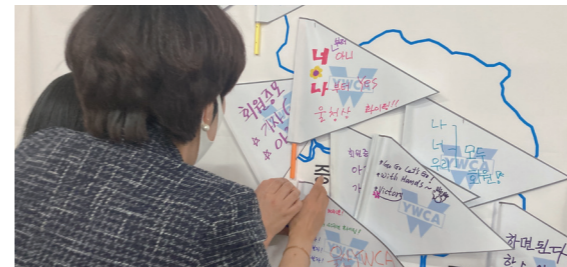


(사)양산YWCA는 5월 18일(수), M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사단법인 양산YWCA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16주년을 맞은 양

산YWCA는 그동안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지부로 운영해 오다가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지역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양산YWCA는 재구조화 정책에 맞춰 지역의 기독교성 시민운동체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운동을 진단하고 핵심주력운동 방향을 재정비하는 오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 법인으로 독립하는 첫발을 디뎠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회원증모발대식



(사)울산YWCA는 5월 9일(월) YWCA 2층 강당에서 (사)울산YWCA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했다. 올해 슬로건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 당신의 참여로!'로 후원자를 발굴함에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YWCA와 함께할 지도력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올해 울산YWCA는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회원증모에 나선다. 사람이 중심인 YWCA가 더 넓은 생명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활동가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진주YWCA 윤인주 간사

기후위기 정책 선포식



진주YWCA는 5월 26일(목) 오전 11시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6.1 지방선거 유권자 정책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정책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고명정 사무총장의 제안문 낭독을 시작으로 이소영 이사 외 4인이 5대 기

후정책과 세부의제를 발표하였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북극곰과 공룡이 전하는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또한 참가자 모두가 기후나무에 기후정책 카드를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역 후보들이 지역사회에 알맞은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제안하였다.

진해YWCA 서지원 간사

아금바리 리폼교실 및 자원순환교육 발대식



진해YWCA는 5월 18일(수) 진해YWCA환경교육장에서 아금바리 리폼교실 및 자원순환교육 발대식을 가졌다.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강사로 구성된 활동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며 헌옷, 헌가구,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수익금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창원YWCA 정지윤 간사

사단법인 창립총회



(사)창원YWCA는 5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 총회에서는 정관심의, 임원선출, 회장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을 진행했으며, 총회 폐회 이후에는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2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직원들의 활기찬 퍼포먼스. 협력 기업체에 감사패 수여 및 오랜 근속으로 센터발전에 기여한 실무자에게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사단법인 창립총회



(사)통영YWCA는 5월 17일(화) 오후1시 30분에 사단법인 통영YWCA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기인 원경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다함께 한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사)통영YWCA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길 부탁하였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옥사-애경에 대한 규탄대회 및 제품 불매운동



포항YWCA는 4월 25일(월)과 5월 9일(월), 포항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가습기 피해조정안을 거부한 옥사-애경에 대한 규탄대회 및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1년째 아직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옥사와 애경 두 기업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포항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문제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불매운동 캠페인을 전개 할 계획이다.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SNNC임직원 1%나눔기금 탄소중립운동 전달식

광양YWCA는 4월 26일(화) 광양YWCA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에서 'SNNC임직원 1%나눔기금 탄소중립운동 전달식'을 진행했다. SNNC기업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특식지원으로 성금 1천 만원과 장바구니 200개, 보자기 400개를 전달하였고,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에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장바구니와 보자기는 지구의 날 행동 주간으로 특식과 정꾸러미를 포장하는 비닐봉투 대신 사용되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어르신들과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어르신에게 전달되고 있다.

(사)광주YWCA

서정현 부장

5월의 광주를 걷다



(사)광주YWCA는 창립100주년을 맞아 5월 27일(목)에 전국YWCA 청(소)년 회원 40 여명을 초청하여 '5.18사적지' 중심으로 순례의 길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국립5.18민주묘지와 5.18항쟁지였던 구)YWCA대의동회관을 비롯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전일빌딩245를 관람하였다. 이번 5.18사적지 순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오월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나눠줌으로써 5.18정신을 계승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군산YWCA 회원무료특강



군산YWCA는 5월 11일(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군산명성요리제과제빵학원에서 '마들렌 만들기' 회원무료특강을 진행하였다. 군산YWCA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마들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제빵실과 제빵도구를 직접 체험했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제한이 있어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음 회원특강(EM 교육)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길 기대한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6.1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



남원YWCA는 5월 24일(화) 오전11시, 남원시외버스터미널-현대아파트정문-오거리-남원YWCA회관을 걸으며 거리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 남원YWCA는 시민들의 참여가 참된 일꾼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핵발전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을 요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투표하겠다고 외쳤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사)목포YWCA에서는 5월10일(화) 3층 강당에서 2022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천은주 회원관리 위원장의 서약문 낭독을 시작으로 회원증모 운동 계획 안내, 조별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을 통해 지역 내 건강한 운동

체로서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함께 동참하자는 마음을 모으고, 회원증모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2022년 서귀포 평화아카데미



(사)서귀포YWCA는 5월 10일(화) 오후 2시, 서귀포YWCA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2022년 서귀포 평화아카데미' 개강식 및 1강좌를 개최했다. 1강좌는 "세계시민이 되는 법"을 주제로 세계분쟁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김명미PD를 초청해 진행됐다. 평화아카데미는 매일 강좌를 진행, 총 7강좌와 평화현장탐방으로 운영된다. 국내 유수의 강사를 초빙해 세계시민, 남북한 관계, 인권, 공동체 등 평화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역 안에서 평화 전략을 고민하고 시민의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검은 목요일 캠페인



사단법인 순천YWCA는 5월 19일(목) 순천시 중앙동 일대에서 '검은 목요일 캠페인'(Thursday in BLACK)을 진행하였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검은 마스크를 배부하고, 검은 목요일 캠페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주요정당에 YWCA의 운동정책을 알리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한

편 시민들에게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하였다.

(사)여수YWCA

서하람 간사

창립 40주년 기념식



(사)여수YWCA는 5월 17일(화) 오후 2시 진남문예회관에서 창립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강안일 담임목사(여수성결교회)의 말씀을 시작으로 1부 기념예배와 40년 동안의 YWCA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비전을 선포하는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 행사에서는 여수YWCA 40년의 여정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통해 여수지역의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2부 기념식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12명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제8기 산모·신생아관리사 양성교육



익산YWCA는 4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진행된 “고령자인재은행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8기 산모·신생아관리사 양성교육”을 통해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예방, 직업윤리, 산모와 신생아마사지, 영유아 안전관리,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 과정과 실습을 통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사)전주YWCA

김은진 국장

후원회원 증모운동 발대식



(사)전주YWCA는 5월 25일(수) 전주YWCA 회관에서 2022 후원회원 증모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사,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자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은 회원운동체로 후원·활동회원 발굴, 참여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생명·평화세상 우리의 참여로!’라는 표어를 외치며 진행되었다. 후원회원 증모운동은 5월 25일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제주YWCA

추현우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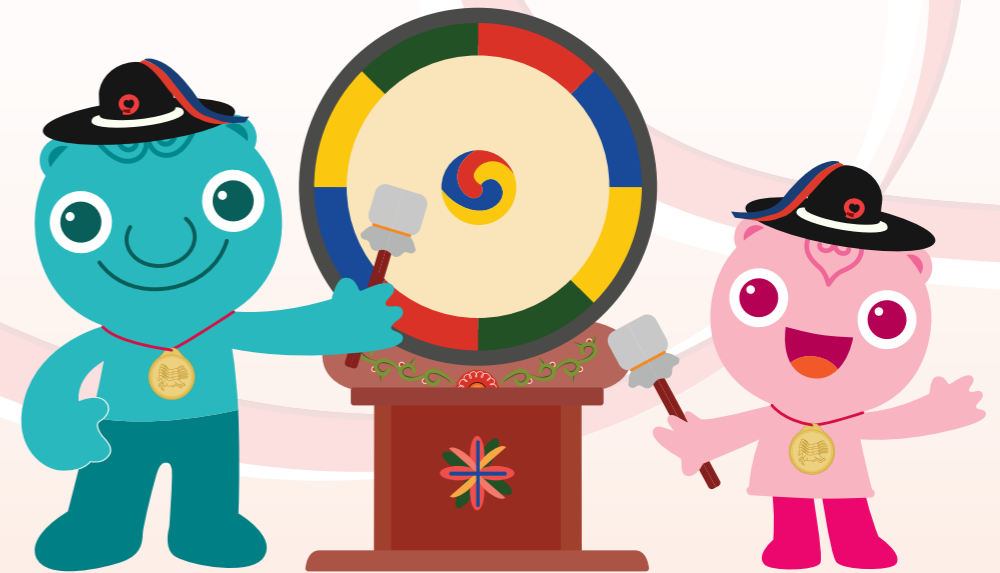
지방선거 대응 캠페인



(사)제주YWCA는 5월 한 달 동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대응 온라인 및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캠페인은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카드뉴스 및 현장 캠페인 활동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현장 캠페인은 2회에 걸쳐 각각 13명 활동가가 참가한 가운데 단체 피켓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YWCA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는 주요정당 각 도당 사무실에 여성과 관련한 3개 주요 아젠다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하였다.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6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7 가족 채용 제한
-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사)서귀포	064.762.1400	(사)전주	063.224.5501
(사)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사)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사)광주	062.609.1300	(사)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사)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사)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사)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사)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사)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사)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